

---

---

#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

---

송 규 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부교수)

---

## 머리말

### I. 일본인의 로비와 기반시설 정비

1. 식민권력의 권유와 일본인의 로비활동
2.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정비

### II. 청진의 사회경제 실상과 그 의미

1. 지방행정체도의 개정과 청진
2. 청진산업의 발전과 경제권의 확대
3. 민족차별의 공간

## 맺음말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62-2008-1-A00001)
- 투고일: 2012. 5. 20.    ● 심사일: 2012. 5. 21.    ● 게재확정일: 2012. 6. 5.

## 요약

청진은 러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해 철도가 부설되면서 새로 형성되었고 1944년에는 인구가 조선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도시가 될 만큼 팽창한 대표적인 ‘식민도시’이다. 청진이라는 지명도 일본군이 작명한 것이다. 러일전쟁이후 민간인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청진에서는 식민권력이 일본인회나 청진상업회외소 설립을 독려할 정도로 일본인단체와 식민권력이 밀착되었다. 식민권력의 비호를 업고 청진의 일본인 세력은 여러 사안에 대해 일본정부를 비롯하여 일본제국 의회, 총독부 등에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로비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지역과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좌절과 승리를 맞본 이런 노력을 통해 청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전기가 마련되었다.

청진은 상권을 동북만주까지 확대하기 위해 철도부설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함경선과 길회선이 개통하는 데 일조했다. 철도부설과 함께 청진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항로개설을 들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도 끈질긴 로비를 통해 직통명령항로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청진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개발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축항공사를 시행했다. 또한 시가지계획에 따라 가로망, 구획정리, 주택지, 공업지 등을 정비했다. 이밖에도 도시민의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했다. 인구증가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동반했고 청진의 경제는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다. 대륙침략 이후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만주수출이 증대되고 이후 ‘대륙진진병참기지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진은 ‘북선루트’를 통해 식료품의 공급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시형성초기에 청진에는 공업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대륙침략

##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으로 북부조선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본독점자본이 진출하여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이나 ‘식민도시’ 청진은 심각한 민족차별의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타 식민도시와 마찬가지로 청진개발의 주체와 수혜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이는 교육차별로 이어져 1937년에는 ‘친일적인’ 조선인 부회 의원들마저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주제어 : 청진, ‘식민도시’, 철도부설, 항로개설, 축항, 상하수도, 민족차별

## 머리말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조선사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변화를 맞았다. 의식, 생활뿐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변했는데 변화의 양상은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손정목은 일제 식민통치하의 도시화과정과 도시사회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 시기에 조선지역의 도시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선인의 의식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sup>1)</sup> 손정목의 연구는 이후 일제강점기 도시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전까지 일제강점기 조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해가는 경위와 식민통치 실상을 고찰한 것, 이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데 비해 손정목의 연구는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식민(지)도시의 건설과정과 일본인이 구상한 식민(지)도시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sup>2)</sup>

그런데 현재 일제강점기 도시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식민도시와 식민지도시를 별다른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식민지도시’는 식민지하의 도시로 일본제국 내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형성된 도시, 재래사회의 전통적 도시 위에 겹쳐지면서 형성된 도시, 기

---

1) 손정목, 1996a,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손정목, 1996b,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참조.

2) 송규진, 2002, 『일제강점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45-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일수, 2003, 『일제강점 전후 대구의 도시화과정과 그 성격』, 『역사문제연구』10, 역사문제연구소; 허정도, 2005,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마산』, 신서원;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55-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참조. 그 밖의 연구에 대해서는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참조.

존 대도시의 근교에 일본이 신시가를 건설한 도시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 반면 ‘식민도시’는 식민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로 식민권력의 정책 혹은 식민지 이주민들의 활동에 의해 건설된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식민지 도시 개념 가운데 일부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sup>4)</sup>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도시에 해당하는 부(府)의 인구가 급증했다. 경성의 인구를 보면 1920년과 비교해서 1944년에는 약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인천의 인구는 5.9배, 대구 4.6배, 부산 4.5배, 평양 4.8배, 원산 4.1배, 신의주는 8.6배 증가했다. 청진의 경우 16.4배나 증가하여 부 가운데 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다.<sup>5)</sup> 그 결과 1944년에 청진은 인구수 184,301명으로 경성 988,537명, 부산 329,215명, 대구 206,638명을 뒤잇는 조선 제4위의 도시로 발전했다.<sup>6)</sup>

청진은 원래 20~30호의 조선인이 거주했던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으나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뒤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군의 한 부대인 ‘북한군’이 원산에 상륙하여 러시아군과 전투를 치렀는데 이후 길주를 경유하여 무산, 회령에서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수자재 보급 및 군대수송을 위한 병참기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측을 통해 적당한 곳을 물색했다. 그 결과 청진이 ‘良港’이며 상륙지점으로 최적이라고 판단하여 항구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청진이라는 지명도 ‘북한군’이 명명한 것이다.<sup>7)</sup>

- 
- 3) 히사야 히로시(김제정 옮김), 2005, 『일본제국주의 - 식민지도시를 건설하다 -』, 모티브북, 17~19쪽.
  - 4) 김백영, 앞의 책, 73쪽.
  - 5) 통계청, 1995, 『통계로 다시 보는 광복이전의 경제·사회상』, 통계청, 8~9쪽.
  - 6) 朝鮮總督府, 1944, 『1944年 5月 人口調査結果報告』1(이하 『인구조사결과보고』로 표기) 참조.
  - 7) 청진을 최적지의 상륙지점으로 결정한 것은 육군포병 중좌였던 筑紫熊七이라고 한다. 淸津商工會議所, 1944, 『淸津商工會議所史』, 淸津商工會議所, 2~3쪽.

이와 같이 청진은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졌고 일제강점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이기 때문에 ‘식민도시’의 성격을 해명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청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8)</sup> 지방자치제 이후 국내 각 지역에서 지역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북한지역에 위치한 청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덜 미친 데다 최근에 수탈사 중심의 역사해석을 비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sup>9)</sup> 필자는 ‘식민도시’가 겪는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축적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객관성을 지닌 주장은 설득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식민도시’의 대표 격인 청진의 변모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청진 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와 지역현안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힐 것이다. 또한 청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지, 사회경제적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11)</sup>

8) 필자가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을 검색한 결과, 청진에 대한 연구는 용암포개항, 의주개시, 신의주 개항과 함께 청진개항을 개설적으로 다룬 연구는 손정목의 논문이 유일하다. 손정목, 1977, 『龍岩浦開港·義州開市와 新義州·淸津開市』, 『서울산업 논문집』11, 서울산업대학(손정목, 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개항장·개시장·조계·거류지』, 일지사, 377~396쪽에 수록) 참조.

9) 최근에는 손정목의 연구가 현시점에서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고 이론적 해석이 거의 부재하다고 비판하면서 식민지도시에 대한 이론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백영, 앞 책 참조.

10) 이 논문의 심사자들은 대체로 청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좀 더 분석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나 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축적하는 것으로 이 논문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한다. 심사자들의 엄정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11) 이 논문은 淸津商工會議所, 1934, 『淸津と後方商勢圈』(이하 『청진』으로 표기); 淸津商工會議所, 1940, 『淸津商工會議所統計年報』(이하 『통계연보』로 표기); 淸津商工會議所, 1944, 『淸津商工會議所史』(이하 『상공회의소사』로 표기); 中村資良編,

## I. 일본인의 로비와 기반시설 정비

### 1. 식민권력의 권유와 일본인의 로비활동

#### 1) 식민권력의 권유에 의한 일본인 단체 조직

러일전쟁 당시 청진은 병참기지로 사용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육군은 수부출장소, 야전우편국 및 주둔부대 등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만 거주했다. 1905년 가을 무렵에 3명의 일본인 주류상인이 입주한 이후 1906년 말에는 민간인 수가 73명으로 늘어났다.<sup>12)</sup> 청진에 일본인이 모여들자 1907년 1월 성진이사청 부이사관 大枝義祐<sup>13)</sup>는 청진을 방문하여 일본인회를 설립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응해 岩田滄<sup>14)</sup>를 중심으로 모인 일본인들이 일본인회를 설립했다. 일본인회가 설립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1907년 6월에는 청진 거주 일본인 수가 280여명으로 급증했다. 당시 일본인회는 법령에 의한 조직이 아닌 사설기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港民대회를 개최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이하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로 표기)와 국가기록원 소장 청진부관련 문서를 주자료로 활용했다. 청진에서 활동한 일본인에 대한 인물 소개와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은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참조했다(이에 의거한 인물소개는 출전 생략함).

12) 『상공회의소사』, 7쪽.

13) 1905년 12월 통감부 屬으로 전근, 조선으로 왔다. 1906년 10월에 부영사에 임명되어 奉天에서 근무한 뒤 성진이사청 이사관이 되었다. ‘한국병합’ 후인 1910년 10월에 조선총독부 인쇄국 사무관으로 인쇄국장 직무대리로 활동하다 1912년 4월에는 조선총독부 의원 서무과장으로 승진했다.

14) 1900년에 조선으로 와 원산에서 상업활동을 개시했다. 1905년 12월에 청진으로 이사한 뒤 大坂商船, 北陸汽船, 東和汽船, 互光商會 등의 대리점을 열었고, 이외도 帝國橫濱, 公同海上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했다. 北鮮運輸合名會社를 창설하여 대표사원이 되었고, 청진수산물식회사를 창설하여 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일본인회 회장과 상협회의소 회장, 消防組 조장, 실업협회 회장, 함경북도 청진부 평의원, 청진 학교조합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하는 등 조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1905년에 제정된 재한일본인 거류민단법<sup>15)</sup>을 준거로 9명의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 가운데 淺岡重喜<sup>16)</sup>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병합’ 이후에는 일본인의 자치기관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위생, 교통을 비롯한 시설 운영에 주력했다. 1911년 4월에는 학교조합으로 개편하고 일본인의 교육을 담당했다.<sup>17)</sup>

청진의 일본인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했는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淸津商話會를 설립했다. 1909년 8월 청진이사청 이사관 中大路正雄<sup>18)</sup>은 “상화회는 지방의 한 사설 모임에 지나지 않아 중앙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지 않은 데다 실력이 없으므로 실질적 내용을 갖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인상업회의소 설립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청진상화회는 경비 지출방안을 마련한 뒤 청진이사청에 일본인상업회의소 발기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사청이 상업회의소 설립을 권유했으니 허가는 당연한 것이었다.<sup>19)</sup> 1910년 3월에 북만주의 전염병 발생으로 간도로부터 조선내로 들어오는 우마차를 회령에서 검역하면서 청진 곡류취급업자의 영업이 정지 상태가 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상공회의소 의원들은 곡물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조선미곡에 부과되는 이입세를

- 
- 15) 박양신, 2012,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과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 『아시아문화연구』26,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참조.
  - 16) 1901년에 부산에서 무역활동을 개시했다. 러일전쟁 때는 博文館 기자로 종군한 후 청진 개항을 위해 활동했다. 北韓情報社를 창립하여 경영하고 朝鮮電氣株式會社, 청진소학교를 설립했다. 청진의 일본인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경성에서 廣江商會에 들어가서 담배제조업에 종사하다 廣江商會가 東亞煙草會社에 합병되면서 퇴사했다.
  - 17) 『상공회의소사』, 9~10쪽. 학교조합에서 설립·운영한 학교는 주로 소학교였다. 조미은, 2012,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학교조합령> 제정과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사람』41, 수선사학회, 208쪽.
  - 18) 1909년에 청진이사청 이사관으로 활동, 한국병합 후인 1910년 10월 경기도 내무부장으로 승진했다. 1911년 7월 6일에 사망했다.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7월 6일자.
  - 19) 『상공회의소사』, 14~25쪽.

철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했다.<sup>20)</sup>

총독부는 1915년 7월 제령 제4호로 「조선상업회의소령」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종래 조선에는 일본인상업회의소와 조선인상업회의소가 동일한 상업지역내에서 병존했고 이해관계가 달라 경합으로 인한 분규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령을 공포한 것이다.<sup>21)</sup> 청진에는 조선인상업회의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분규가 없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1916년 3월에 35명(조선인 6명 포함)을 발기인으로 하여 총독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총독부는 “청진은 활발한 상업지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업회의소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sup>22)</sup> 그러자 청진부민들은 상업자 집회를 개최하고 위원을 선정하여 총독부에 계속 진정했다.<sup>23)</sup> 1919년 4월에 30명(조선인 7명 포함)을 발기인으로 다시 설립인가를 신청했고 1921년 11월에는 35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170여 명의 실업가 동의서, 정관, 경비예산서, 청진부윤의 납세증명서 등 필요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sup>24)</sup> 1925년 10월에는 청진부윤 三上新<sup>25)</sup>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결국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sup>26)</sup> 11월에 창립대회를

20) 『상공회의소사』, 28쪽. 조선 미곡의 이입세 폐지운동은 1913년 4월 법률 제17호 「조선에서 산출하는 쌀 및 나락 이입세폐지」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송규진, 2010, 「조선의 '관세문제'와 식민지관세법의 형성」, 『사학연구』99, 한국사학회, 213쪽.

21)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1976, 『商工會議所九十年史』上,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149쪽.

22) 『상공회의소사』, 31~34쪽.

23) 「淸津商議와 府民」, 『每日申報』 1916년 5월 9일자.

24) 청진 상공인은 청진번영회를 조직하여 경제조사, 상공통보, 지방경제시설 촉진, 행정청의 자문 응답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청진상공회의소가 인가를 받아 청진번영회를 자진 해소했다. 『상공회의소사』, 38~39쪽.

25) 1911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경기도 屬으로 시흥군, 수원군 등에서 서무주임을 역임했고 1916년에 조선총독부 수산과 주임이 되었다. 1924년에 함경북도 온성군수로, 1925년에는 함경북도 청진부윤으로 승진했다. 1928년 퇴직한 후에 北鮮日日新聞社 사장에 취임했다.

26) 「商業會議所新設」, 『每日申報』 1925년 10월 29일자.

열어 일본인 12명, 조선인 4명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1926년 7월에 법적 근거를 갖춘 청진상업회의소로 개소했다.<sup>27)</sup>

총독부는 1930년 5월 제령 제4호로 「조선상공회의소령」을 발표했다. 조선공업이 일정 정도 성장하면서 조선상업회의소에 상인뿐만 아니라 공업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이에 따라 청진상업회의소도 청진상공회의소로 개칭했고 1931년 1월에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3월 10일에 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sup>29)</sup> 만주침략 이후 준전시체제가 진행되면서 청진상공회의소는 1932년 6월 제1회 조선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서 만주국을 승인하자고 건의할 정도로 만주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1932년 12월부터 1933년 1월까지 청진의 상인 자제 및 일반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만주어 및 만주사정강습회를 개최하면서 만주와 활발히 교류하고자 했다.<sup>30)</sup>

## 2)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쟁과 협력

### ① 철도부설운동

1905년 8월에 일본 육군은 러일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수품을 수송하기 위해 임시로 청진~회령 사이 및 청진~나남 사이 경편철도를 부설했다. 철도가 부설되자 군수품과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여객화물도 철도로 운송되었다.<sup>31)</sup> 청진의 일본인은 청진~회령 사이에 철도부설을

27) 『상공회의소사』, 71~79쪽.

28)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앞 책, 158쪽.

29) 제1회 의원선거를 한 뒤 임원선거를 했는데 회장에 小竹松太郎, 부회장에 辻兵五郎, 禹麟源, 常議員으로 森野和一郎, 太田直太郎, 佐佐木逸次郎, 里井徳太郎, 특별 의원으로 犬童光治, 久保秀一, 山本正行이 선출되었다. 이후에도 임원진의 변동이 있었지만 조선인은 1명만 있었기 때문에 청진상공회의소를 일본인 단체로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상공회의소사』, 118~120쪽.

30) 『상공회의소사』, 133~136쪽.

31) 『상공회의소사』, 85~86쪽.

완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했다.<sup>32)</sup> 일본과 교통연락망을 완비하면서 먼저 회령까지 철도를 부설한 뒤 吉林과 결합하여 청진 상권을 동북만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1910년 1월에 청진일본인상업회의소는 원산~회령을 연결하는 철도부설을 위해 일본제국의회 중의원과 철도협회에 로비했다. 1913년 3월에 중의회에서는 조선철도건설 및 개량공사비 총액 6천 560만원에 함경선 설비에 따른 2천 910만원(기존 함경선건설비 1천 2백만원)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청진~회령간의 건설비가 9백만원을 차지했고 봉급 및 급여비, 차량비 등을 합산하면 1천만원에 달했다.<sup>33)</sup>

일제가 함경선을 부설하려 한 것은 함경남북도 지방의 석탄과 삼림을 개발하고 해산물을 반출함으로써 연료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또 함경선을 吉會線과 연결하여 만주내륙과 시베리아 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청진·나남·웅기 등을 통해 일본과 최단거리의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함경선은 군사적·경제적으로 경부·경의철도에 버금가는 제2의 종관 간선철도로 평가받기도 한다.<sup>34)</sup>

1914년 4월에 청진건설사무소가 설치되면서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 일부를 현지에서 조달했고, 선박을 이용하여 원산에서 청진으로 수송하여 경편철도로 배급했다.<sup>35)</sup> 그런데 함경선 本線 공사를 착수할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물가 및 임금이 앙등하자 용지매수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었고 청부업자와 계약단가를 개정해야 하는 등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다.<sup>36)</sup> 그러자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쿨리를 작업인부로 모집하여 공사를 계속 이어갔다.<sup>37)</sup> 1917년 청진~회령 사이의 철

32) 「日人の我國拓殖條項」, 『皇城新聞』 1906년 5월 1일자.

33) 『상공회의소사』, 85~92쪽.

34)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출판부, 145쪽.

35) 청진건설사무소는 1916년 10월에 청진출장소로 개칭되었다. 「鐵道局淸津出張所」, 『每日申報』 1916년 10월 13일자.

36) 『상공회의소사』, 85~93쪽.

37) 「淸會鐵道 近況」, 『每日申報』 1915년 3월 22일자.

도가 개통되었고 1919년에 나남~청진 사이, 1920년에는 종성, 1921년에는 주을까지 철도를 연장했다. 다음으로 종성~회령 사이, 청진에서 회령까지 茂山線(조선총독부협궤)을 개통하여 도문강을 넘어 天圖線(南廻線)과 연결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28년 9월 1일에 함경선(원산~회령 사이)을 全通하여 경원선(1914년 9월 개통)과 연결했다.<sup>38)</sup>

길회선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길회선의 종단항 설정을 두고 청진과 나진이 경합했다. 청진은 ‘사활을 걸고’ 길회선 종단항이 되기 위해 로비했다. 1926년 청진상공회의소는 『길회철도의 종단항에 대한 소견』이라는 작은 책자를 작성하여 전국 및 만주에 배포하고 청진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에는 청진이 종단항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sup>39)</sup> 그런데 나진도 종단항이 되기 위해 끈질기게 로비하면서 1926년 6월에 항만협회에서 종단항조사원을 파견하여 검토했지만 청진, 웅기, 나진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종단항을 확정짓지 못했다. 하지만 대체로 청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청진의 종단항 설비비를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이라 함)가 지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고무되었다.<sup>40)</sup> 그런데 1932년 5월 10일 일본정부가 ‘일만교통’을 정비하기로 결정하자 척무대신이 만철 총재에게 나진을 종단항으로 확정하도록 지시했고, 8월에 조선총독은 나진을 종단항으로 한다고 발표했다.<sup>41)</sup> 청진은 부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협의했으나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sup>42)</sup>

38) 『청진, 35쪽. 당시 청진~圖們 사이의 철도는 청진의 사활문제가 걸린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淸津圖們間鐵道는 淸津의 死活問題, 間島를 시찰한 下山參謀談」, 『每日申報』 1925년 4월 13일자.

39) 「吉會鐵道 終端港은 結局淸津港?」, 『每日申報』 1926년 3월 14일자.

40) 「終端港設備費 滿鐵이 支出」, 『每日申報』 1932년 1월 31일자.

41) 『상공회의소사』, 212~213쪽.

42) 「羅津終端港決定에 淸津府民大絶望 府民의 死活問題라고 大會열고 對策決議」, 『每日申報』 1932년 8월 27일자.

1933년 6월에 만철은 나진건설사무소를 설치한 후 공사에 착수했고 1933년 8월 31일에 敦圖線(敦化~圖們)을 개통하면서 길회선을 완공했다.<sup>43)</sup>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사설철도인 圖們線을 매수하여 표준궤로 개착했으며 1933년 10월에 圖們江橋를 가설하고 조선철도와 만주철도를 연결한 후 철도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북선철도’를 만철에 위탁경영하도록 했다.<sup>44)</sup> 또한 1935년 10월 1일까지 웅기~나진 사이에 철도를 개통하여 상삼봉~남양 사이의 철도와 결합하면서 북부조선과 만주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했다. 이후 만주로부터 청진으로 오가는 모든 물자는 京圖線의 朝陽線驛으로부터 남하 분기하는 南廻線을 통과하게 되었다.<sup>45)</sup>

북부조선 철도를 만철이 위탁경영하기로 결정했지만 처음에 총독부는 북선3항(청진, 나진, 웅기) 가운데 나진항만을 허락했다. 만철의 ‘나진 집중주의’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판단한 청진은 청진항의 만철 이관을 위해 로비했다. 총독부는 1936년 4월 30일 칙령 제60호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관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청진 및 웅기의 부두경영을 만철에 무료로 대부하면서 북선3항을 만철이 경영하도록 허락했다.<sup>46)</sup> 그럼에도 만철이 나진항 경영을 우선시하자 청진은 청진~남양 사이의 철도경영을 총독부에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sup>47)</sup> 이런 요구가 계속되자 총독부는 1940년 4월부터 다시 청진~남양 사이의 철도를 경영했는데 이후 청진은 청진발 對滿 화물운임을 만철경영 당시와 동일하게 하고 나진·웅진과 같은 비율의 운임을 받아 3항이 對滿지위에서

43) 『상공회의소사』, 98~99쪽.

44) 정재정, 『앞의 책』, 161~162쪽. 1933년 3월 1일 만주국은 기존철도의 경영과 신철도의 건설을 위입하기 위해 철로총국을 奉天에, 건설기관을 大連에 두었다. 철도총국 설립과 동시에 관할철도의 합리적 유기적 운영 수립과 경제적 운영을 원칙으로 삼았다. 『청진』, 46~47쪽.

45) 『청진』, 36쪽.

46)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4월 30일자.

47) 「北鮮鐵道委任 經營에 不滿」, 『每日申報』 1936년 9월 1일자.

우열이 생기지 않도록 로비하여 총독부의 특례를 이끌어냈다.<sup>48)</sup>

## ② 항로개설운동

1909년 3월에 일본중의원에서 청진~敦賀 사이의 직통항로에 관해 논의하자<sup>49)</sup> 청진이사청 이사관 中大路正雄은 청진상화회에 청진~敦賀 사이의 항로개설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청진상화회 회장 潮崎長治<sup>50)</sup>는 인구증가로 청진여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정책을 철폐하고 관세율을 인상하여 블라디보스톡 물가가 20%정도 오른 반면 루블화의 가치는 하락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彈春, 두만강 연안 방면으로 화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시했다. 그 반사이익으로 청진으로부터 화물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직통항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sup>51)</sup> 일본체신성은 서기관을 파견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했지만 同항로가 무익하다고 평가했다.<sup>52)</sup> 한편 일본에서도 동해<sup>53)</sup>직통항로 개시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 大阪의 右近權左衛門은 동해항로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청진일본인상업회의소에 협력을 구하면서 1910년 1월에 일본정부에 동해항로를 개시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를 청원했다. 이에 호응하여 청진일본인상업회의소 회장 潮崎長治도 일본정부에 보조금 교부를 청원했다.<sup>54)</sup>

1910년 1월에 청진은 원산, 敦賀, 舞鶴과 함께 일본정부로부터 보조금

48) 『상공회의소사』, 247~248쪽.

49) 북악사학회 편, 1991, 『帝國議會衆議院議事速記錄』2, 太山, 151쪽.

50) 러일전쟁 시 제2군 제16연대 酒保로 만주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경성에서 목재상점인 熊野商會를 설립하고 지배인으로 근무했다. 청진에서는 공동출자로 新浦商會를 설립하고 목재업에 종사했다. 학교조합 관리자, 부회 의원, 금융조합 조합장 등을 역임했다.

51) 『상공회의소사』, 43~44쪽.

52) 『航路無益』, 『皇城新聞』 1909년 10월 17일자.

53) 당시 자료에는 일본해로 되어 있으나 이를 동해로 수정했다(이하 동일함).

54) 『상공회의소사』, 44~45쪽.

을 교부받기 위해 대장대신 桂太郎, 외무대신 小村壽太郎, 체신대신 後藤新平, 농상무대신 大浦兼武, 귀족원의장 德川家達, 중의원의장 長谷場純孝 등에 로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병합’ 이후인 1910년 10월에도 청진일본인상업회의소는 청진을 비롯한 종성, 나남, 회령 일본인회에 협력을 호소하고 청진~敦賀 사이, 혹은 청진~舞鶴 사이의 항로를 개설해달라는 청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sup>55)</sup> 그럼에도 제국의회에 지속적으로 로비했고 1918년에 조선총독부의 명령으로 청진~敦賀線으로 청진, 성진, 원산, 敦賀에 기항할 수 있었다.<sup>56)</sup> 1925년부터는 宮津, 舞鶴, 新舞鶴을 추가했는데<sup>57)</sup> 함북의 석탄 및 목탄을 東京에 원활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이었다.<sup>58)</sup> 1928년 1월에 북일본주식회사는 동해항단 敦賀~清津 직통항로를 개설했다.<sup>59)</sup> 북일본기선회사는 이 항로에 대한 보조금 교부와 명령항로 지정을 위해 敦賀, 청진과 함께 로비했다. 敦賀상공회의소는 조선총독, 체신대신, 福井縣지사에 清津敦賀間 직통 명령항로 개시청원서를 제출했고 청진상업회의소도 조선총독, 정무총감, 체신국장, 해사과장에게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의 재정 현실은 기존 항로의 보조금도 감액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대륙침략 이후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1933년 4월에 체신성의 명령항로로 지정되었다.<sup>60)</sup>

1935년 11월에 나진이 개항되면서 ‘동해시대’가 출현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sup>61)</sup> 상황에서 동해항로의 着發港 변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

55) 『상공회의소사』, 56~58쪽.

56) 1918년 4월 12일 청진에 횡단항로로 처음 귀항했다. 「橫斷航路 初航, 十二日 清津歸着」, 『每日申報』 1918년 4월 13일자.

57) 『상공회의소사』, 79~80쪽.

58) 「清津東京間 直通航路開始」, 『每日申報』 1925년 1월 3일자.

59) 『상공회의소사』, 80쪽.

60) 『상공회의소사』, 82~85쪽.

61) 「日本海時代드디어 出現」, 『每日申報』 1936년 10월 7일자.

다. 1936년 11월에 청진상공회의소 회장 四元嘉平次<sup>62)</sup>, 청진부회 부회장 小竹松太郎<sup>63)</sup>, 청진번영회 岩田遜은 “일부 소수자의 불순한 운동을 억압하고 북부조선과 북만주의 무역 중심지인 청진항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했다. 또 新瀉~羅津線을 간선으로 敦賀~北鮮線을 보조항로로 지정한다는 소문이 있자 敦賀와 서로 제휴하여 일본 항로의 역사와 군사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청진과 일본 사이의 연락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책적 항로를 결정하는 데 新瀉·나진과 균등하게 대우하고 新瀉~羅津루트에 대해 敦賀~청진루트로 할 것”을 총독부 및 만주요로에 로비했다. 그럼에도 1940년 2월 일본기선주식회사가 창립되었고 총독부는 新瀉~北鮮線의 기점을 나진으로 결정했다.<sup>64)</sup>

## 2.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정비

### 1) 축항과 시가지계획 실행

청진축항은 1907년 한국정부가 1만 2천평(공사비 약 40만원)의 부지를 제공하고 세관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sup>65)</sup> 해안에 산재한 어촌에 지

---

62) 1906년에 大阪稅關에서 근무하다 군산세관장으로 부임했다. 1912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청진에 거주하면서 北鮮運輸株式會社를 창립하여 사장에 취임했다. 조선 북부지방의 자원개발을 위해 광산과 임업에도 관여했다. 부협의회 의원과 학교조합원, 도평의회 의원, 도회 의원, 청진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63) 청진 岩田回漕店에 입사했으며 이후 藤米穀店으로 옮겨 7년여를 근무하면서 일본에서 진 부채를 전부 변제했다. 1914년에 米穀商을 경영하면서 청진상공회의소 회장, 부회 의원을 역임했다.

64) 『상공회의소사』, 231~232쪽. 나진이 중단항과 개발작 기점 경쟁에서 청진에 승리를 거둔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청진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조선 내부의 문제보다는 만철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추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지 않았던 청진은 인구가 늘면서 도시로 발전했지만 처음에는 이주민이 무게획적으로 세운 집이 죽 늘어선 빈약한 모습이었다. 이후 산기슭을 개척하면서 大和町, 敷島町이 개발되었고 다음으로 幸町, 祝町, 朝日町, 吉川町, 目賀田町, 榮町, 壽町이 개발되었다. 1910년에 청진의 해안매축 공사가 착공되어 1911년에 준공되었고 뒤이은 제2기 매축공사가 착공되면서 경철레일 및 보통도로가 확장되었다.<sup>66)</sup> 1913년 3월에 완공된 후에는 明治町, 寶町, 彌生町, 入般町이 개발되었고 이후에도 청진개발을 위한 촉향운동이 계속 되었다.<sup>67)</sup> 1919년에 청진상업회의소 회장 四元嘉平次는 조선총독 長谷川好道를 비롯한 주요관계자를 만나 촉향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매일신보는 이에 호응하여 청진촉향의 필요성을 공론화했고<sup>68)</sup> 1919년 2월 10일 일본중의원에서는 청진촉향을 가결했다.<sup>69)</sup>

1922년에 제3기 매축공사를 착수했는데 이때 입찰하는 자가 없어 부에서 직영으로 공사하기로 결정했다.<sup>70)</sup> 그런데 매축지역 절반이 철도引込線으로 편입되어 예정된 시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제4기 공사를 착수하여 도심개발을 서둘러 진행했지만 신시가지 난개발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조선인이 밀집한 신암동은 구획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만 매축공사 결과 일본인 밀집 거주지역인

65) 『청진』, 54쪽.

66) 「清津港 埋築工事」, 『每日申報』 1911년 10월 11일자.

67) 1917년 당시 청진부의 정동은 松島町, 日出町, 榮町, 曙町, 橋立町, 高砂町, 巴町, 壽町, 幸町, 祝町, 常盤町, 相生町, 吉川町, 敷島町, 大和町, 朝日町, 目賀田町, 明治町, 寶町, 入般町, 彌生町, 富貴町, 福泉町, 北星町, 新岩洞, 浦項洞으로 일본식 명칭이 대부분이다. 특히 目賀田町이 있음을 통해 '식민도시'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 越智唯七 編,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1,050~1,052쪽.

68) 「清津築港運動」, 『每日申報』 1919년 1월 12일자; 「清津築港問題」, 『每日申報』 1919년 1월 13일자

69) 「衆議院清津築港可決」, 『每日申報』 1919년 2월 14일자.

70) 「清津港 埋築 直營」, 『每日申報』 1922년 2월 25일자.

明治町, 彌生町, 寶町, 港町에 은행, 기타 무역상 등이 점포를 설립하면서 대거래소를 형성했다.<sup>71)</sup> 아울러 1931년 3개년 계획사업으로 18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차도와 보도 분리 등 시가지 정비사업이 전개되었다.<sup>72)</sup> 특히 청진항만 축항은 주로 수이입화물의 하역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청진인구의 5할 이상을 차지했던 빈궁민을 위한 구제사업의 성격도 있었다. 1934년의 경우 공사비 20만원 가운데 상환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6만원으로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20%인 4만원은 부두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할 계획이었다.<sup>73)</sup>

1936년 1월에 청진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독부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up>74)</sup> 1936년 3월에 총독부는 고시 제181호 「청진 시가지계획구역 및 시가지계획가로망 및 同토지구획정리결정」<sup>75)</sup>을 발표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를 결정했다. 12월에는 시가지계획령에 의해 토지구획정리 방침을 정하고 사업비는 이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1937년부터 5개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이때 제1지구와 제2지구 총면적은 약 2백 30만평으로 시가지계획령 제48조에 기초하여 土地垔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 분할, 교환, 구획형질의 변경 및 도로, 광장, 운하, 공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진은 직원으로 촉탁 12명, 雇員 24인, 傭人 16인을 채용하고 시가지계획을 수립했다.<sup>76)</sup> 확장일로에 있던 청진은 주변에 이웃한 나남과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1940년에 나남을 통합하여 ‘대청진부’로 발전했다.<sup>77)</sup>

---

71) 『청진』, 17쪽.

72) 「三年間計劃으로 淸津市街地整理」, 『每日申報』 1931년 7월 27일자.

73) 「淸津港沿岸貿易埠頭設備充當府債ヲ起スノ件」, 『淸津府關係書』CJA0003069, 47쪽.

74) 「淸進府와 城津邑 都市計劃委員會」, 『每日申報』 1936년 1월 21일자.

75)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3월 26일자.

76) 「淸津市街地計劃第二土地區劃整理事業計劃概要」, 『淸津府關係書綴』CJA0003208, 393쪽.

중일전쟁 이후 '북선루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진은 항만확충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로비에 나섰다.<sup>78)</sup> 1940년 4월에 새로 취임한 경성상공회의소 회장 川本彰一<sup>79)</sup>은 청진항만 확충이 '흥아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대청진'의 가장 긴급한 문제라며 총독부에 청원했다. 북부조선 경제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상, 또 국가경제상 긴요하다는 것이 주요 논제였다. 그는 1941년 4월에 청진부회 부의장 厚母繁一<sup>80)</sup>를 비롯한 공직자 및 유지들과 함께 淸津港擴築期成會를 조직했다. 대륙반 및 내지 반을 구성하여 東京, 京城, 新京, 大連 등 여러 지역에서 로비활동을 펼쳤다. 이에 함경북도 도지사 大野謙一도 호응하여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총독부와 군당국에 대규모 축항의 필요성을 진정했다.<sup>81)</sup> 1940년 3월에 청진부회는 청진부시가지계획과 나남읍시가지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수성평야 일대를 공장지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성평야를 순환하는 철도선로와 청진~나남철도선로를 이용하여 전차 및 궤도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총독부에 요청했다.<sup>82)</sup>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주택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는 1941년 6월 14일 제령 제23호 「조선주택영단령」을 발포했다.<sup>83)</sup>

77) 당시 병합된 구역은 羅南邑 전부, 富寧郡 靑岩面 班竹洞·自作洞·稷下洞, 鏡城郡 龍城面의 대부분이다. 『상공회의소사』, 167~168쪽.

78) 『상공회의소사』, 223쪽.

79) 1917년 6월 조선으로 건너와 청진에서 해산물상을 개업한 이래 20년에 걸쳐 조선 수산업계에 종사했다. 말린 청어·조림생선을 제조했고, 조선에서 처음으로 鹽鱈을 제조했다. 정어리 어업에도 주력했으며 京圖線의 개통 이후 對滿수출의 호황을 이용해서 만주국에 鹽鱈과 鹽鯨을 대량으로 수출했다. 咸鏡北道輸出鹽魚組合 조합장, 咸鏡北道機械船底曳漁業水産組合 부조합장, 함경북도수산회 특별의원, 부회 의원을 역임했다.

80) 일본 明治대를 졸업하고 조선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부회 의원에 당선된 뒤 부의장을 역임했다. 『淸津府關係綴』CJA0003560, 60쪽.

81) 『상공회의소사』, 224~229쪽.

82) 『府會意見書提出ノ件』, 『淸津府關係綴』CJA0003560, 31~32쪽.

83) 손정목, 1996b, 앞의 책, 298쪽.

청진은 1941년 5월 주택지조성을 위해 起債를 모았다. 부로 편입된 지역에서 시가지계획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옥건설이 쉽지 않았고 지가는 택지로 하기에는 비싸 조건이 좋지 않자 사업을 전개한 것이다. 이때 주택영단이 신청 평수의 80%를 점하면서 주택조성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sup>84)</sup>

【표 1】 주택조성지 신청자

구분	평수	비율(%)
三菱광업주식회사	2,500	5.6
동양척식주식회사	4,200	9.5
북선합동전기회사	2,000	4.5
주택영단	35,713	80.4
합계	44,413	100.0

출전 : 『淸津府關係綴』CJA0003627, 408쪽.

## 2) 상하수도시설 정비

청진의 구시가지는 과반이 해안지대를 매립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井戸水 조건을 구비한 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 惡水뿐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합한 식수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했다. 1917년에 총공사비 274,600원의 예산을 투여해 수도설비를 시작하여 1920년 5월에 준공했다.<sup>85)</sup> 급수가 시작된 이후 제1기와 제2에 걸쳐 확장공사를 시행했으나 급격한 인구·공장부지·선박 증가로 매년 급수부족현상이 거듭됐다. 이로 인해 수질이 좋은 얇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위생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제2기 공사 종료 후 바로 제3기 확장공사를 기안하여 12만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저지대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철도국으로부터 4만 5천원

84) 『淸津府班竹町及東水南町ニ各一團ノ住宅地造成起債ノ件』, 『淸津府關係綴』CJA0003627, 443쪽.

85) 『청진』, 29쪽.

의 현품(철관)을 공급받고 나머지 7만 5천원을 기채했다.<sup>86)</sup>

【표 2】 급수호수

구분	총호수	급수호수	급수호 비율(%)
1920	2,534	1,048	41.4
1921	2,761	1,569	56.8
1922	3,348	1,739	51.9
1923	3,444	1,784	51.8
1924	4,979	2,051	41.2
1925	5,363	2,213	41.3
1926	6,010	4,028	67.0
1927	6,115	4,288	70.1
1928	6,366	4,482	70.4

출전 : 『淸津府關係書類』CJA0002744), 82쪽.

1929년에 다시 12만원을 투입한 제4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1930년 7월에 완공되었다. 【표 2】와 같이 1928년에 청진의 급수호 비율은 70.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만주침략이후 ‘북선루트’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구가 더 증가하자 급수보급률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청진부청에서는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流下式 수도로 고치는 공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청진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특히 1940년에 ‘大청진부’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되자 급수보급률은 더 낮아졌다. 그러자 청진부는 급수보급률 50%를 목표로 하여 상수도 확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sup>87)</sup> 【표 3】은 당시 급수호수 증가예상표인데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신암정은 1940년까지 수도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88)</sup>

86) 「第三次水道擴張工事費起債許可申請」, 『淸津府關係書類』CJA0002676, 425~426쪽.

87) 「淸津府上水道擴張工事起債ノ件」, 『淸津府關係綴』CJA0003560, 648~650쪽.

88) 경성의 급수보급율은 1932년에 52.9%였는데 일본인의 급수보급율은 98%인 반면

【표 3】 급수호수 증가예상표(1940년)

구분	예정 급수호수	당시 급수호수
배수관증설공사	143	
신압정	33	
동해안	23	
포항정	455	
수남정	628	
고주산	150	15

출전 : 『淸津府關係綴』CJA0003560, 651쪽.

하수도 시설도 초기에는 불완전했는데 시가지와 매축도로가 형성되면서 각 정의 幹線 大溝渠를 설치하여 대하수도로 설정했고 小溝渠를 만들어 간선과 연결하여 바다로 흘려보내도록 했다.<sup>89)</sup> 청진의 하수시설은 처음에는 대부분 자연 방류상태에 있을 정도로 열악했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나 가옥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아 위생문제가 발생했다. 청진의 간선 도로마저도 강우시에 침수될 뿐만 아니라 교통량 증가로 노면 소실이 심해지자 수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931년에는 3개년 계획으로 기채하여 사업을 수행했다. 기채상환은 국고보조 및 부세로 충당하도록 했다. 당시 청진부내 인구 3만3천여 명의 반 이상은 노동자였는데 하층부민의 대부분은 어업, 또는 稼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도시빈민이었다. 청진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총공사비 18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사업을 시행했다.<sup>90)</sup> 이 사업은 위생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 근대도시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sup>91)</sup>

조선인의 급수보급율은 32%에 불과했다. 김백영, 『앞의 책』, 462쪽.

89) 『청진』, 30쪽.

90) 「下水工事起債費許可申請」, 『淸津府關係書』CJA0002873, 51~54쪽.

91) 「淸津府下水와 道路 第二期工事設計 救濟를 兼하여 全般的으로 總工費五十萬圓」, 『每日申報』 1932년 8월 24일자.

## II. 청진의 사회경제 실상과 그 의미

### 1. 지방행정제도의 개정과 청진

러일전쟁 이후 한국정부에 초빙된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郎은 제2차 러일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먼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다음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무역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위해 청진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진항이 ‘良港’이며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항장 지정을 한국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정부는 성진을 개항한 상황에서 인근지역인 청진을 개항하면 청진이 수출항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수입항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의 불균형으로 한국 재정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sup>92)</sup> ‘만한경영’을 중시했던 目賀田種太郎은 청진에서 회령까지 철도를 부설하면 청진으로 유입하는 만주 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항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한국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1906년 12월부터 청진의 토지 매수에 착수했고, 1907년에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1908년 4월 1일에 개항했다.<sup>93)</sup>

청진은 처음에 군대가 관리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기관이 없었는데 1906년 12월에 통감부는 성진이사청 중성지청을 신설하여 청진도 그 관할 아래 두었다. 개항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형태가 완비되면서 1907년

92) 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1938, 『目賀田種太郎』, 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473쪽. 실제로 이시기에 청진에는 수입이 늘어난 반면 수출은 전무했다. 「咸北經濟情況」, 『皇城新聞』 1906년 3월 9일자.

93) 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위의 책, 473~474쪽. 원문에는 개항일이 1907년 4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손정목의 연구에 따라 1908년 4월 1일로 수정했다. 손정목, 1982, 앞의 책, 388쪽.

7월에 청진지청이 설치되었고, 12월에 청진이사청이 개설되면서 행정도시의 면모를 갖췄다.<sup>94)</sup> 청진개항 이후 이 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 헌병사령관 明石元二郎은 청진에 헌병대를 파견하고<sup>95)</sup> 청진을 직접 순시하기도 했다.<sup>96)</sup>

일제는 1910년 9월에 칙령 제355호 「조선총독부관제」, 칙령 제356호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등 통치기구에 관한 일련의 관제를 발표하면서 중앙의 통치기구를 확립한 데 이어 칙령 제357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발표함으로써 조선강점에 따른 지방통치기구를 확립했다. 조선강점 당시에 1首府 13도 11부 317군이던 지방행정조직은 13도 12부 317군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성진부가 성진군으로 된 반면 청진은 富寧郡을 포함하여 청진부가 되었다.<sup>97)</sup> 이후 총독부는 지방행정체도를 개정하여 1913년 10월 제령 제7호 「부제」를 공포하고 1914년 4월 1일부터 종래의 부군제를 폐지하여 부를 도시행정의 기본단위로 하는 부제를 실시했다.<sup>98)</sup>

부로 확정된 청진은 함경북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 부제가 실시된 1914년에 청진인구는 5,539명으로 부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었다. ‘면’의 경우도 1만명 이상인 곳이 많았는데 청진이 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청진의 인구 가운데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sup>99)</sup> 청진이 부로 확정되고 도시 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일본인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이주도 급격히 늘어났다. 【표 4】에 의하면 청진 인구는 1910년과 비교할 때 1943년에는 무려 56배 이상 증가했다.<sup>100)</sup> 청진

94) 『상공회의소사』, 8쪽.

95) 「各着信地」, 『皇城新聞』 1908년 4월 5일자.

96) 「北行巡視」, 『皇城新聞』 1908년 8월 8일자.

97) 손정목, 1992,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감오경장~일제강점기-』, 일지사, 116~118쪽.

98) 손정목, 위의 책, 122~129쪽.

99) 손정목, 1996a, 앞의 책, 82~88쪽.

100)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 하던 시기에 조선의 인구통계는 연말마다 호구조사로

##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의 인구 가운데 일본인의 비율은 1911년을 정점으로 조선인의 이주 증가에 따라 점차 떨어졌다. 그러나 절대인구가 15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 전체의 일본인 인구가 3.5배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폭증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sup>101)</sup>

【표 4】 인구수추이

[단위 : 인구수(명), 비율(%)]

구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인구수		합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중국인	기타	인구수	지수
1910	2,085	53.3	1,578	40.3	251	1	3,915	100
1911	2,215	60.4	1,399	38.1	52	2	3,668	94
1912	1,701	50.4	1,578	46.7	97	2	3,378	86
1913	2,076	49.0	2,036	48.1	119	2	4,233	108
1914	2,862	51.7	2,544	45.9	131	2	5,539	141
1915	3,013	46.5	3,264	50.3	205	2	6,484	166
1916	3,385	43.7	4,211	54.3	151	1	7,748	198
1917	3,858	42.6	5,001	55.2	193	1	9,053	231
1918	4,238	43.2	5,353	54.6	210	6	9,807	250
1919	4,559	42.4	5,980	55.6	216	7	10,762	275

발표된 것과 국세조사 계통에 속한 것이 있다. 호구조사는 매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와 조선의 인구통계로 공표되었으며, 국세조사는 1925년 간이국세조사, 1930년·1935년(간이)·1940년 국세조사(이상 각 연도의 10월 1일 현재), 1944년 국세조사(5월 1일 현재)로 이어졌다. 조선총독부가 연차별로 행한 ‘현재호구’ 통계는 현재인구가 아니라 상주인구에 관한 통계로 주로 경찰의 호구조사에 의해 집계되었다. 경찰이 실시한 호구조사의 실제 조사항목은 인구동태사항을 훨씬 넘어섰고, 식민 통치를 위한 편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지방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통계로서 결함이 있지만 매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인구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며 【표 4】도 호구조사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국세조사에 의해 1944년 5월 1일 현재 청진인구는 일본인 29,581명, 조선인 151,781명, 외국인 2,939명으로 호구조사에 의한 1943년 통계와 비교하면 일본인과 조선인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인구조사결과보고』, 17쪽. 일제강점기 인구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박명규·서호철, 2003, 『식민권력과 통계』, 서울대출판부, 61~121쪽.

101) 송규진 외, 2004,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부, 91쪽.

사학연구 제110호(2013. 6)

1920	4,114	36.7	6,858	61.2	236	6	11,214	286
1921	4,651	33.9	8,793	64.1	257	6	13,707	350
1922	5,386	30.5	11,658	66.1	586	9	17,639	451
1923	6,150	29.1	14,288	67.7	620	48	21,106	539
1924	6,654	30.9	14,184	65.9	643	48	21,529	550
1925	6,126	29.8	13,367	64.9	1,073	17	20,583	526
1926	6,447	29.9	13,979	64.9	1,108	15	21,549	550
1927	6,608	30.2	14,125	64.5	1,135	17	21,885	559
1928	7,205	30.8	15,318	65.4	867	17	23,407	598
1929	7,494	29.3	17,159	67.2	878	13	25,544	652
1930	8,355	24.8	24,003	71.2	1,348	19	33,725	861
1931	9,016	25.9	24,891	71.5	903	21	34,831	890
1932	8,322	23.7	26,036	74.1	739	23	35,120	897
1933	9,412	24.6	28,198	73.6	668	28	38,306	978
1934	9,510	22.5	31,923	75.6	764	24	42,221	1,078
1935	10,313	20.6	38,785	77.4	968	19	50,085	1,279
1936	11,604	20.5	44,023	77.7	1,011	27	56,665	1,447
1937	12,137	18.1	53,930	80.5	873	18	66,958	1,710
1938	13,593	18.8	57,663	79.7	1,077	20	72,353	1,848
1939	15,733	17.0	74,925	81.1	1,692	19	92,369	2,359
1940	26,747	17.2	126,977	81.6	1,856	16	155,596	3,974
1941	30,638	13.8	187,999	84.8	3,022	16	221,675	5,662
1942	31,659	13.5	199,609	85.2	3,101	19	234,388	5,987
1943	31,601	14.3	186,596	84.4	2,893	15	221,105	5,648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朝鮮統計年鑑』 1948년판.

부에는 부윤의 자문기관으로 부협의회를 두었는데 부협의회의원은 각 도장관이 임명했으며 협의회 의장은 부윤이었다. 3·1운동 이후 1919년 9월 조선총독은 「시정방침에 관한 건」을 훈시하면서 “지방에 있어서 민 풍의 함양과 민력의 작흥은 지방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장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목적으로 조속히 이의 조사연구에 착수

할 것이다”라고 하여 지방행정제도 개정을 시사했다. 이 방침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조사연구가 착수되었고, 1920년 7월 제령 제12호 「부제중 개정」이 공포되면서 민선에 의한 부협의회를 두었다. 그런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남자로 1년 이상 그 부의 주민인자와 총독이 지정하는 부세 연액 5원 이상을 납부한 자에게만 부여되었다. 인구수는 조선인이 많았지만 부협의회의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으로 결국 일본인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부협의회가 민선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부윤의 자의적 권한은 개정전보다 더 강화되었고 부협의회는 부의 세출입 및 예산에 관련한 일체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sup>102)</sup> 그럼에도 부윤과 부협의회 사이에 지역문제와 관련한 의견차이로 대립하여 충돌한 경우가 있다. 1928년에 청진의 일부 부협의회의원들은 부윤이 부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실관계에 의해 부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며 조선총독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청진이 개발되면서 府有地 교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촉발한 사건이다.<sup>103)</sup>

총독부는 1930년 12월에 제령 제11호 「부제개정」을 공포하고 193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여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부협의회를 의결기관인 부회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청진부협의회도 의결기관인 청진부회로 바뀌었다. 당시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부는 의원을 27명으로 규정했다.<sup>104)</sup> 개정전인 1931년 3월 13일에 부협의회의 의장은 부윤인 일본인이었고 의원은 모두 1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일본인이었다.<sup>105)</sup> 부회로 개정한 후인 1931년 6월 8일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원 수가 27명으로 늘어나면

102) 손정목, 1992, 앞의 책, 183~185쪽.

103) 「清津府有地交換問題の真相と經過」, 『清津府關係綴』CJA00002676, 304~312쪽. 경성에서는 조선총독 山梨半造가 부유지를 부정으로 불하한 스캔들로 구설수에 올랐다. 손정목, 1996b, 앞의 책, 284~285쪽.

104) 손정목, 1992, 앞 책, 247~248쪽.

105) 「清津府協議會會議錄」(拔萃), 『清津府關係書』CJA0002873, 81~82쪽.

서 일본인은 19명, 조선인은 8명으로 늘었다.<sup>106)</sup> 1940년에 청진이 크게 확장되면서 부회 의원도 36명으로 늘었는데 일본인은 18명으로 줄어든 반면 조선인은 1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 유권자 수가 비슷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07)</sup> 당선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상업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자산을 살펴보면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자산가가 가장 많았다.

【표 5】 1940년 7월 28일 부회 의원 선거 민족별 유권자 및 당선자<sup>108)</sup>

구분	일본인(명)	조선인(명)	합계(명)
인구	26,740	126,977	153,717
유권자수	2,432	2,476	4,908
유권자1인당인구	11	51	31
입후보자	28	32	60
당선자수	18	18	36
당선자1인당인구	1,486	7,054	4,270

출전 : 『府議會選舉ニ關スル報告』, 『清津府關係綴』CJA0003560, 521쪽.

【표 6】 1940년 7월 28일 부회 의원 선거당선자  
민족별 · 직업별 · 자산별 현황

직업별	일본인(명)	조선인(명)	합계(명)
농업		1	1
공업	1	3	4
상업	7	7	14
공무			0
기타	10	7	17
합계	18	18	36

106) 『清津府協議會會議錄』(拔萃), 『清津府關係書』CJA0002873, 219~220쪽.

107) 『清津府協議會會議錄』, 『清津府關係綴』CJA0003627, 25쪽.

108) 당시 청진부의 부회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清津府ニ於ケル選舉前及選舉當日ニ於ケル內鮮人別選舉運動ノ概況』, 『清津府關係綴』CJA0003560, 524~525쪽.

##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자산별	일본인(명)	조선인(명)	합계(명)
1백만원 이상	2		2
50만원 이상		1	1
20만원 이상	2	2	4
10만원 이상	4	5	9
5만원 이상	1	3	4
1만원 이상	9	6	15
5천원 이상		1	1
합계	18	18	36

출전 : 『府議會選舉ニ關スル報告』, 『淸津府關係綴』CJA0003560, 522쪽.

## 2. 청진산업의 발전과 경제권의 확대

### 1) 청진무역의 발전과 상권범위의 확대

일제하 조선무역액은 1910년을 기준연도로 1942년에 수이출은 약 49배, 수이입은 약 54배 증가했다.<sup>109)</sup> 조선무역의 양적 팽창도 엄청난 것이지만 청진의 수이출입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다. 【표 7】에 의하면 1910년을 기준연도로 1942년에 수이출은 1,100여배, 수이입은 120여배 증가했다. 1910년에 청진이 차지한 수이출 비중은 0.19%, 수이입 비중은 1.07%에 지나지 않았으나 1942년에는 수이출에서는 5.92%, 수이입에서는 5.35%, 합계 5.55%를 기록하면서 조선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이는 만주지역과의 단순 통과무역이 포함된 것이다. 통과무역의 비중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청진무역이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보다 민감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다.<sup>110)</sup>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일본과의 이출입이었다.

109) 송규진 외, 앞의 책, 196쪽.

110) 【부표 1】 참조.

【표 7】 수이출입

구분	수이출			수이입			합계		
	금액(원)	지수	비율(%)	금액(원)	지수	비율(%)	금액(원)	지수	비율(%)
1908	2,468	6	0.0	436,289	73	1.1	438,757	69	0.8
1909	16,118	42	0.1	1,023,843	171	2.8	1,039,961	163	2.0
1910	38,128	100	0.19	600,086	100	1.51	638,214	100	1.07
1911	24,905	65	0.13	988,671	165	1.83	1,013,576	159	1.39
1912	64,232	168	0.31	1,165,163	194	1.74	1,229,395	193	1.40
1913	104,010	273	0.33	1,266,483	211	1.76	1,370,493	215	1.33
1914	171,098	449	0.49	1,477,304	246	2.32	1,648,402	258	1.67
1915	181,439	476	0.36	2,056,410	343	3.44	2,237,849	351	2.04
1916	551,246	1,446	0.95	2,474,268	412	3.29	3,025,514	474	2.28
1917	1,126,267	2,954	1.33	2,800,083	467	2.69	3,926,350	615	2.08
1918	3,442,064	9,028	2.21	4,138,412	690	2.58	7,580,476	1,188	2.40
1919	3,380,155	8,865	1.52	6,679,083	1,113	2.36	10,059,238	1,576	1.99
1920	2,867,843	7,522	1.46	6,081,392	1,013	2.44	8,949,235	1,402	2.01
1921	4,072,332	10,681	1.87	7,632,681	1,272	3.28	11,705,013	1,834	2.60
1922	4,058,166	10,644	1.88	7,644,723	1,274	2.99	11,702,889	1,834	2.48
1923	6,728,897	17,648	2.55	10,640,178	1,773	4.00	17,369,075	2,722	3.28
1924	9,023,801	23,667	2.74	11,147,574	1,858	3.61	20,171,375	3,161	3.16
1925	6,898,898	18,094	2.02	10,616,564	1,769	3.12	17,515,462	2,744	2.57
1926	7,234,525	18,974	1.99	12,137,122	2,023	3.26	19,371,647	3,035	2.64
1927	9,459,227	24,809	2.64	13,073,710	2,179	3.41	22,532,937	3,531	3.04
1928	10,487,625	27,506	2.87	14,034,763	2,339	3.39	24,522,388	3,842	3.14
1929	13,197,261	34,613	3.82	13,943,852	2,324	3.30	27,141,113	4,253	3.53
1930	8,283,839	21,726	3.11	9,953,193	1,659	2.71	18,237,032	2,858	2.88
1931	6,718,292	17,620	2.57	6,762,079	1,127	2.50	13,480,371	2,112	2.53
1932	9,159,575	24,023	2.89	12,320,792	2,053	3.82	21,480,367	3,366	3.36
1933	9,769,829	25,624	2.68	15,831,717	2,638	3.93	25,601,546	4,011	3.34
1934	12,921,295	33,889	2.80	23,554,540	3,925	4.59	36,475,835	5,715	3.74
1935	20,976,950	55,017	3.84	30,067,096	5,010	4.59	51,044,046	7,998	4.25
1936	31,910,241	83,692	5.45	42,521,015	7,086	5.64	74,431,256	11,662	5.56
1937	39,008,919	102,310	5.81	51,048,354	8,507	6.01	90,057,273	14,111	5.92
1938	38,702,795	101,508	4.49	71,857,662	11,975	6.92	110,560,457	17,323	5.82

##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1939	56,114,549	147,174	5.81	101,694,118	16,947	7.49	157,808,667	24,727	6.79
1940	41,046,905	107,656	5.54	89,583,461	14,928	6.71	130,630,366	20,468	6.29
1941	43,450,903	113,961	5.51	95,588,306	15,929	7.02	139,039,209	21,786	6.47
1942	44,557,729	116,864	5.92	73,593,852	12,264	5.35	118,151,581	18,513	5.55

출전 : 송규진 외, 앞의 책, 214~217쪽에 의거하여 재작성.

\* 조선무역액에서 청진이 차지했던 비율을 의미함.

1939년의 청진무역 기록을 살펴보면 수출은 3천 4백만여원, 수입은 8천 7백만여원이었으며 수출은 2천 1백만여원, 수입은 1천 3백만여원이었다. 청진무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4%였다.<sup>111)</sup> 청진무역은 조선무역 일반과 비교할 때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 8】은 1939년 청진의 국별 수출입 통계이다. 이에 의하면 수출에서는 84.8%, 수입에서는 55.9%로 1위를 차지했던 만주국이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현상은 대륙침략 이후 ‘북선루트론’이 제기되고 중일전쟁 이후 ‘대륙진병참기 지론’이 거론되면서 청진을 비롯한 북선3항이 크게 부각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12)</sup>

**【표 8】 국별 수출입(1939년)**

구분	수출		수입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관동주	73,791	0.3	31,973	0.2
만주국	18,058,238	84.8	7,707,875	55.9
중국	8,356	0.0	86,448	0.6
영령인도			371,360	2.7

111) 『朝鮮貿易年表』 1939년판.

112) 대륙침략기 ‘북선루트론’과 ‘북선3항’에 대해 필자가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노령아세아			1,400	0.0
영국	34,899	0.2	5,862	0.0
독일	278,764	1.3	2,253,752	16.3
벨기에	16,280	0.1		
스위스			543	0.0
네덜란드	239,654	1.1		
미국	2,572,766	12.1	3,013,910	21.9
호주			307,230	2.2
기타			9,612	0.1
합계	21,282,748	100.0	13,789,965	100.0

출전 : 『朝鮮貿易年表』 1939년판.

청진의 중요수출품은 쌀 및 벼, 해산물류, 과일 및 씨, 면직사, 면직물, 작업화, 시멘트, 법랑철기, 목재, 철이었고, 중요 수입품은 좁쌀, 기장, 콩, 팥, 채두, 천일염, 기계류였다.<sup>113)</sup>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수출상품인 해산물류이다. 만주침략 이후 조선무역협회에서 수출상품으로 가장 유망하다고 파악한 것은 해산물류였다. 만주침략을 계기로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증가하자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해산물의 對滿 수출이 계속 늘어났다.<sup>114)</sup> 청진에서도 해산물류 수출이 계속 늘어났고 【표 9】에 의하면 1938년에는 수출상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점했다.<sup>115)</sup> 수입은 콩을 비롯한 잡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13) 이출 중요상품은 콩, 팥, 채두, 해산물류, 우피, 어유, 석탄, 금광, 원목, 魚肥, 豆粕이었고 이입 중요상품은 쌀 및 벼, 밀가루, 설탕, 청주, 맥주, 성냥, 목재, 비료, 조면·타면, 면직사, 生布, 晒포, 백목면, 진스, 太綾布, 면수자, 기타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어망·漁網地, 양지, 석탄, 시멘트, 도자기, 鐵條·鐵竿, 레일, 철관, 鐵電汲板이었다. 통과무역 가운데 만주로 나가는 중요상품은 밀가루, 설탕, 청주, 맥주, 밀감, 기타 음식물, 면직사, 면직물, 모직물, 인견직물, 스포츠물, 기타 布綿·제품, 종이·종이제품, 도자기, 금속, 금속제품, 기계류였고 만주에서 들어오는 중요상품은 밀, 콩, 팥, 채두, 蘇子, 펄프, 麻子, 밀기울, 대두박이었다. 『청진통계연보』, 8~20쪽.

114) 朝鮮貿易協會, 1935, 『昭和九年度支那出張所事業概況』, 朝鮮貿易協會, 61~63쪽.

115) 일본인들이 수요로 인해 청진의 해산물류 수출 가운데 일본산이 44.2%나 되었다. 【부표 2】 참조.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표 9】 수출 중요상품

구분	쌀 및 벼		해산물류		과실 및 씨		면직사		면직물	
	수량 (석)	금액 (원)	수량 (근)	금액 (원)	수량 (근)	금액 (원)	수량 (근)	금액 (원)	수량 (방마)	금액 (원)
1930	141	4,187	1,371,770	69,622	129,392	10,392	41,705	40,269	3,130,223	640,284
1931	12	244	1,081,489	70,052	153,185	12,454	13,363	8,493	2,902,277	453,411
1932	170	4,403	1,471,302	88,295	162,500	10,998	20,360	12,336	3,201,511	505,377
1933	307	7,495	2,738,561	156,087	277,405	14,613	32,870	19,757	2,048,222	559,389
1934	426	14,080	2,352,889	154,984	274,986	18,772	23,374	15,494	1,229,469	287,424
1935	1,597	51,391	3,435,055	279,201	1,471,678	86,497	43,534	34,818	1,311,541	309,178
1936	1,655	47,473	4,765,964	377,218	3,023,367	193,319	4,867	3,632	1,902,585	452,648
1937	1,697	50,855	8,002,290	762,771	3,303,302	214,255	3,409	2,207	1,285,546	297,297
1938	1,994	71,860	10,897,690	1,095,785	4,996,553	361,341	296	240	791,447	220,991
구분	작업화		시멘트		범람철기		목재		철	
	수량 (족)	금액 (원)	수량 (백근)	금액(원)	수량 (근)	금액 (원)	수량 (입방척)	금액 (원)	수량 (근)	금액 (원)
1930							4	5	120,213	11,946
1931	1,368	1,424	1,068	1,424					12,010	120,213
1932	2,438	3,730	2,438	3,730					13,061,175	792,460
1933	98,669	144,945	98,669	144,945			133,988	81,561	12,735,569	641,427
1934	55,895	83,410	55,695	83,410	78,768	25,285	405,121	328,105	6,993,078	543,693
1935	10,537	15,170	10,337	15,170	110,616	31,804	658,115	354,728	1,703,426	152,935
1936	16,429	19,177	16,429	19,177	66,145	16,422	577,881	322,346		
1937	735	3,743	735	3,743	43,535	10,903	16,827	15,234		
1938	49,553	75,803	49,553	75,803	43,006	13,298	56,232	76,554		

출전 : 『청진통계연보』, 8~9쪽.

【표 10】 수입 중요상품

구분	좁쌀		기장		콩		팥	
	수량 (백근)	금액 (원)	수량 (백근)	금액 (원)	수량 (백근)	금액 (원)	수량 (백근)	금액 (원)
1930	135,648	837,078	8,930	51,599	32,509	173,907	10,579	75,076
1931	64,886	195,192	5,009	17,163	20,720	80,328	4,286	19,579
1932	169,541	687,190	6,839	31,139	158,487	787,258	19,852	104,853

사학연구 제110호(2013. 6)

1933	155,484	829,916	5,198	29,799	227,696	1,333,505	28,130	162,931
1934	132,989	680,880	8,099	47,206	464,244	1,949,129	33,315	146,908
1935	145,353	1,257,350	12,891	109,679	316,639	1,707,260	10,722	61,683
1936	230,466	1,619,250	22,340	165,653	561,500	3,283,160	17,986	110,213
1937	147,156	1,158,858	14,328	114,669	932,318	6,469,112	33,981	228,735
1938	64,063	526,312	5,557	48,805	553,065	3,442,784	50,226	309,251
구분	채무		천일업		기계류		목재	
	수량(백근)	금액(원)	수량(근)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입방척)	금액(원)
1930	2,011	8,554	12,241	69,698		1,544		
1931	6,120	21,565	13,428	7,492			5,438	1,600
1932	93,666	377,280	50,003	33,251			6,418	2,103
1933	56,240	281,014	105,698	101,999		4,301	749	227
1934	18,828	72,478	99,312	101,277		6,776	188,567	84,928
1935	2,208	12,243	94,019	97,476		18,379	103,223	65,275
1936	1,172	7,959	118,953	121,906		28,669	106,558	67,608
1937	7,462	57,815	133,307	140,158		23,932	135,272	116,660
1938	48,477	338,712	84,093	102,525		409,706	85,819	132,126

출전 : 『청진통계연보』, 10~11쪽.

청진은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상권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특히 만주침략 이후 동북만주 전체를 상권으로 포괄했다. 북쪽 웅기와 남쪽 성진은 청진의 副港 역할을 했으며 총면적 1,300리와 동북만주 1,550리가 청진의 상권범위에 해당했다. 그 지역의 주 생산물은 농산, 임산, 광물 등 천연자원이었다. 청진의 경제권내에 있는 곡물집산지였던 龍井을 중심으로 南廻線를 근간으로 한 국경의 경제교류는 청진을 吞吐港으로 이루어졌다.<sup>116)</sup>

이와 같은 사정으로 청진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본력이 없는 소매상인도 있었지만 상당한 자본을 갖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도 많았다. 특히 국경지방의 목재, 광산

116) 『청진』, 30쪽.

##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물 및 동부만주 일대의 목재 및 콩, 광산물은 京圖線, 拉濱線, 圖寧線 등의 철도를 통해 수송되었는데 대부분 청진항을 통해 운반되었다. 탄토 화물은 주로 일본으로 수송되었다. 한편 청진 상인 가운데 조선인은 위탁판매업을 하는 자가 많았고 함경북도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곡류, 해산물류를 취급했다. 步行客主라 일컬어지는 상인도 있었는데 여객을 위한 숙박업뿐만 아니라 중개업을 겸업했다.<sup>117)</sup>

【표 11】 직업별 인구 구성(1939년)

[단위 : 인구(명), 비율(%)]

구분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공무자유업	2,917	21.5	2,333	4.0	2	0.2	5,252	7.3
농업 및 목축업	24	0.2	1,395	2.4	326	29.7	1,745	2.4
상업 및 교통업	6,650	48.9	22,680	39.3	606	55.2	29,936	41.4
공업	2,792	20.5	12,276	21.3	124	11.3	15,192	21.0
수산업	602	4.4	2,611	4.5		0.0	3,213	4.4
무직	280	2.1	620	1.1	1	0.1	901	1.2
기타	328	2.4	15,748	27.3	38	3.5	16,114	22.3
합계	13,593	100.0	57,663	100.0	1,097	100.0	72,353	100.0

출전 : 『청진통계연보』, 4~5쪽.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기재된 청진의 본점회사는 1939년에 112사였는데 1942년에는 218사로 크게 증가했다. 중일전쟁 이후 ‘대륙루트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청진이 급격히 발전한 것을 반영한다. 또한 1940년에 나남이 포함되면서 청진이 크게 확장된 것도 회사가 크게 늘어나는 한 요인이 되었다. 회사수에서는 상업이 1939년에는 42.9%, 1942년에는 40.4%로 수위를 차지했는데 직업별 인구구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17) 『청진』, 85~86쪽.

【표 12】 청진 본점회사의 업종별 회사수

구분	1939		1942	
	사수	비율(%)	사수	비율(%)
광업	1	0.9	3	1.4
금진신탁업	3	2.7	6	2.8
농림업	3	2.7	8	3.7
상업	48	42.9	88	40.4
수산업	13	11.6	22	10.1
양조업	1	0.9	8	3.7
운수창고	9	8.0	10	4.6
인쇄업	4	3.6	5	2.3
전기업	1	0.9		0.0
제조공업	13	11.6	33	15.1
기타	16	14.3	35	16.1
합계	112	100.0	218	100.0

출전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 · 1942년판.

그런데 자본금과 납입금만을 살펴보면 전기업이 1939년에는 자본금과 납입금에서 33.2%,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sup>118)</sup> 1942년에는 수산업이 31.8%, 4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시기에는 해산물이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해산물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형회사가 만들어진 것을 반영한다.

【표 13】 청진 본점회사의 업종별 자본금과 납입금

[단위 : 금액(원), 비율(%)]

구분	자본금				납입금			
	1939		1942		1939		1942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18) 청진에 본점을 두었던 北鮮合同電氣가 1942년에는 본사를 함흥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1942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광업	100,000	0.4	430,000	1.4	100,000	0.8	295,000	1.5
금전신탁업	2,320,000	10.0	930,000	3.0	585,000	4.6	195,000	1.0
농림업	330,000	1.4	1,450,000	4.7	180,000	1.4	608,000	3.1
상업	2,393,444	10.3	6,211,339	20.1	722,500	5.7	2,294,500	11.5
수산업	4,100,000	17.7	9,850,000	31.8	3,050,000	24.2	8,960,000	45.1
양조업	22,000	0.1	544,000	1.8		0.0	370,320	1.9
운수창고	1,437,500	6.2	2,332,000	7.5	1,025,000	8.1	2,091,000	10.5
인쇄업	173,000	0.7	308,000	1.0	93,000	0.7	239,000	1.2
전기업	7,700,000	33.2		0.0	4,550,000	36.1		0.0
제조공업	3,159,400	13.6	5,570,200	18.0	1,671,200	13.3	3,580,000	18.0
기타	1,480,000	6.4	3,317,883	10.7	624,500	5.0	1,253,750	6.3
총합계	23,215,344	100.0	30,943,422	100.0	12,601,200	100.0	19,886,570	100.0

출전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 · 1942년판.

### 2) 대륙침략기 청진의 공업 발전 현황

청진은 상업을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로 처음에는 공업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대륙침략은 자원, 전력, 연료, 用水 등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해륙교통이 정비된 청진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5년에 대일본방적주식회사가 조선에 인견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신의주와 함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던 청진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유치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청진부윤과 청진상공회의소가 지주들을 설득하여 지가를 낮추자 1936년 11월에 대일본방적주식회사는 청진에 인견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sup>119)</sup> 이후 토지매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sup>120)</sup> 1937년 6월에 공사비 250여만원으로 大林組에 낙찰되어 7월에 착공하고<sup>121)</sup> 1939년 5월에 火入式을 거행했는데 ‘크롭’법에

119) 『상공회의소사』, 199~200쪽.

120) 「日本紡織清津工場 基地買收好轉 前田府尹努力으로 地主側도 大略諒解」, 『每日申報』 1936년 12월 4일자.

121) 「大日本紡清津工場 七月부터 着工키로」, 『每日申報』 1937년 6월 12일자.

의한 일본 최초의 시험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sup>122)</sup>

총독부는 1934년에 무산철광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36년부터 일본 내 철의 기근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철자금정책이 제기되었는데 청진상공회의소는 6월에 제5회 조선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서 무산개발 및 북부조선 제철소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민 대표로 청진부회 부의장 小竹松太郎, 청진번영회 회장 岩田滄은 총독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한때 중지설까지 있었지만 청진은 언론을 이용하여 청진유치를 기정사실화했고<sup>123)</sup> 결국 1936년 12월 일본제철은 청진에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sup>124)</sup> 그러자 지가가 크게 상승했고<sup>125)</sup> 함경북도에서는 지가상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철소 부지 매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1938년 5월 29일에 일본제철은 청진제철소를 기공하고 1942년 5월 25일에 개업했다. 三菱鑛業은 무산철광을 원료로 청진제련소를 완공했다. 1943년 8월에 日本原鐵株式會社를 청진에 설립하고 1943년 12월에 조업을 개시했다.<sup>126)</sup>

일제는 전시산업을 재편성하면서 일본본토에서는 경공업을 정비하여 생산을 줄였지만, 조선에서는 일본과 수송이 곤란하고 배급이 통제되는 상황이어서 각종제품의 자급을 꾀했다. 게다가 조선에서 금속제품 회수정책이 실시되면서 도자기의 자급생산이 더욱 절실했다. 그러자 청진은 도자기공업을 유치하기 위해 1942년에 일본 도자기공업의 조선 내 이주

122) 「清津三菱製鍊의 歷史的火入式」, 『每日新報』 1939년 5월 6일자.

123) 「清津에 製鐵所?」, 『每日申報』 1936년 10월 1일자.

124) 「製鐵所設置地 清津에 決定」, 『每日申報』 1936년 12월 6일자.

125) 「清津地方土地稅 會文驛附近에 波及 二、三錢의 林野가 一躍廿錢」, 『每日申報』 1936년 12월 25일자.

126) 『상공회의소사』, 200~203쪽. 이시기 청진에 설립된 대부분의 공장도 물자동원계획과 생산력확충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총독부의 주도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청진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배석만, 2010, 「조선 제철업 육성을 둘러싼 정책조율과정과 청진제철소 건설(1935~45)」, 『동방학지』151, 연세대 국학연구원 참조.

를 제창하고 6월에 ‘내지공업유치조사단’을 조직하여 일본의 주요 요업 지대에 파견했다. 1943년 3월에 총독부는 淸津九谷陶瓷器株式會社의 창립을 허용했다. 함경북도는 상공성, 조선총독부, 만주국 및 일본도자기공업조합연합회 간에 국책회사 설립을 제안하고 淸津九谷陶瓷器株式會社를 참여하게 하여 동아요업주식회사의 창립을 주도했다. 이 회사는 금속회수대체품 제조에 중점을 두면서 만주, 중국, 남방의 수요에도 맞춰 각종 공업용품을 제작했다.<sup>127)</sup>

한편 ‘대륙루트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산가공업이 청진지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공장으로 鱈粕을 제조하는 데 머물렀지만 일본에서 鱈油수요가 늘자 온유제조의 현지기업화를 촉진하여 청진을 중심으로 鱈油肥공장이 생겨났다. 만주국의 출현으로 동북만주시장, 나아가 제3국 무역도 이루어져 魚粉, 어유, 통조림 등 제품의 판로가 확대되자 청진에 대규모 공장이 계속 건설되었는데 1933년 朝鮮油脂가 조업하면서 경화유공업도 발전했다.<sup>128)</sup>

정어리가공업에는 油肥 및 유지와 같은 신흥화학공업 외에도, 식료품 공업으로 鹽鱈제조업, 통조림제조업이 있었고 ‘정어리 식료화’가 제창되면서 식료 어분을 제조하고 조미료도 제조했다. 염온제조업도 1933년 수출염어조합 설립 이후 품질향상에 주력했고 1937년에는 어항에 공동공장을 설치한 뒤 염어회사를 설립하여 원료 자급자족을 도모함으로써 대만주국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sup>129)</sup>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전시 식량문제가 절박해지자 일제는 식량대책으로 수산가공업이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청진은 정어리어업 및 그에 따른 鱈油肥제조업이 가장 발달하여 1939년의 경우 전조선 생산액의 70%를 차지했다.<sup>130)</sup> 1943년부터는 종래

127) 『상공회의소사』, 204~205쪽.

128) 『상공회의소사』, 187~188쪽.

129) 『상공회의소사』, 189~190쪽.

비용으로 가공한 魚粉으로부터 식료어분으로 전환을 꾀했다. 생산력 유지확보를 위해 계획적 생산, 필요물자의 일원적 통제, 공동경영의 촉진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아울러 능률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는 수산단체를 재편성했다. 하지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청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sup>131)</sup>

### 3. 민족차별의 공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진은 인구가 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산업도 발전했다. 그럼에도 청진 역시 모든 ‘식민도시’가 그러하듯 개발주체와 수혜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조선인은 청진발전 과정에서도 민족차별을 체험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급격히 성장했던 ‘식민도시’ 청진은 다른 ‘식민지도시’와 비교할 때 차별이 더 심했다.

청진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끈 청진상공회의소의 회원은 1934년에 모두 35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조선인은 87명으로 대략 25% 정도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sup>132)</sup> 앞의 【표 4】에 의하면 1934년 청진전체 인구수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정도였다. 소수의 일본인이 경제를 지배했고 대다수 조선인은 경제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던 당시의 현실이 청진경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표 14】에 의하면 청진상공회의소의 의원과 임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차별이 더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청진상공회의소 의원 19명 가운데 조선인은 3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임원(회장:四元嘉平次)은 6명 가운데 조선인은 1명에 불과했다.

130) 『상공회의소사』, 182쪽.

131) 『상공회의소사』, 192~193쪽.

132) 【부표 3】 참조.

【표 14】 청진상공회의소 의원과 임원

		일본인(명)	조선인(명)	합계(명)
의원	인원(명)	16	3	19
	비율(%)	84.2	15.8	100.0
임원	인원(명)	5	1	6
	비율(%)	83.3	16.7	100.0

출전 : 『청진』, 87~89면.

1939년 당시 청진 본점회사 가운데 일본인회사는 74사였는데 조선인 회사도 38사나 있었다. 이 가운데 상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일본인 회사는 26사였고 조선인 회사는 22사였다.<sup>133)</sup> 그런데 자본금과 납입금을 일본인 대 조선인의 비율로 살펴보면 90.3%:9.7%와 91.8%:8.2%로 일본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sup>134)</sup> 여기에 일본 독점자본의 지점회사까지 더한다면 청진경제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다.

【표 15】 청진 본점회사 민족별·업종별 수

구분	일본인(명)	조선인(명)	합계(명)
광업	1		1
금전신탁	2	1	3
농림업	3		3
상업	26	22	48
수산업	9	4	13
양조업		1	1
운수창고	6	3	9

133) 세부사항은 【부표 2】 참조.

134) 이는 조선전체를 다룬 허수열의 분석과 유사하다. 그런데 허수열의 분석은 일제독점자본을 포함한 지점회사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체의 본점회사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허수열의 분석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허수열 책에서 인용한 1940년판은 1939년판의 오기인 듯하다. 허수열, 2005, 『개발없는 개발』, 은행나무, 216쪽.

인쇄업	2	2	4
전기	1		1
제조공업	9	4	13
기타	15	1	16
합계	74	28	112

출전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

【표 16】 청진 본점회사 민족별 · 업종별 자본금 · 납입금

자본금						
구분	일본인		조선인		합계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광업	100,000	100.0			100,000	100.0
금전신탁	2,300,000	99.1	20,000	0.9	2,320,000	100.0
농림업	330,000	100.0			330,000	100.0
상업	1,928,105	80.6	465,339	19.4	2,393,444	100.0
수산업	3,090,000	75.4	1,010,000	24.6	4,100,000	100.0
양조업		0.0	22,000	100.0	22,000	100.0
운수창고	1,199,500	83.4	238,000	16.6	1,437,500	100.0
인쇄업	118,000	68.2	55,000	31.8	173,000	100.0
전기	7,700,000	100.0		0	7,700,000	100.0
제조공업	2,744,200	86.9	415,200	13.1	3,159,400	100.0
기타	1,464,000	98.9	16,000	1.1	1,480,000	100.0
총합계	20,973,805	90.3	2,241,539	9.7	23,215,344	100.0

  

납입금						
구분	일본인		조선인		합계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광업	100,000	100.0			100,000	100.0
금전신탁	585,000	100.0			585,000	100.0
농림업	180,000	100.0			180,000	100.0
상업	647,500	89.6	75,000	10.4	722,500	100.0
수산업	2,400,000	78.7	650,000	21.3	3,050,000	100.0
양조업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운수창고	825,000	80.5	200,000	19.5	1,025,000	100.0
인쇄업	80,500	86.6	12,500	13.4	93,000	100.0
전기	4,550,000	100.0			4,550,000	100.0
제조공업	1,571,200	94.0	100,000	6.0	1,671,200	100.0
기타	624,500	100.0			624,500	100.0
총합계	11,563,700	91.8	1,037,500	8.2	12,601,200	100.0

출전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

경제적 차별은 교육 차별로 이어졌다. 청진의 교육시설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조선전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편이었다. 청진 거주 일본인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혼합하여 같이 교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일본인은 학교를 별도로 건설하여 제1부 특별경제 예산으로 청진공립 고등심상소학교, 청진고등여학교를 운영했다. 조선인의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청진공립보통학교를 두었는데 이는 일본인의 심상소학교와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경비를 지방비로 지불했지만 1920년 총독부의 지방제도 개정, ‘학교조합령’개정으로 일체 비용을 청진학교조합에서 부담하게 했다. 또 청진부윤이 관리자가 되어 지방비 보조금을 3할로 감액하고 잔액을 청진부내 조선인의 부과금으로 해결했다. 1930년 12월에는 제도를 개정하여 교육비를 제2부 특별경제 예산에 포함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sup>135)</sup>

1930년대에 들어오면 민족차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조선인의 교육열로 인해 초등·중등 교육기관은 조선인 수가 일본인 수를 크게 앞질렀다.<sup>136)</sup> 앞의 【표 4】에 의하면 1934년 청진의 일본인은 모두 9,510명으로 인구의 22.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표 1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진의 일본인 학생은 1,739명으로 51.7%, 청진의 일본인 교직원 은 36명으로 60%를 차지했다. 반면 조선인은 인구 31,923명으로 75.6%로 압도적인 비중이었지만 학생은 48.3%, 교직원은 24명으로 40%에 지나

135) 『청진』, 20~21쪽.

136) 송규진 외, 앞의 책, 352~370 참조.

지 않았다.<sup>137)</sup> 이는 교육비 부담액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표 18】은 청진의 교육기관 조세공과부담금을 표기한 것이다. 1933년을 1932년과 비교하면 일본인의 1호당 세액과 1인당 세액은 약간 감소하고 조선인 1호당 세액과 1인당 세액은 약간 증가했다. 그럼에도 1933년의 일본인 1호당 세액과 1인당 세액은 각각 23원과 5원을 넘었지만 조선인 1호당 세액과 1인당 세액은 각각 3원과 0.6원에 지나지 않아 큰 차이가 있었다.

【표 17】 1934년 학생과 교직원

구분	분류	인원(명)	비율(%)
일본인	학생	1,739	51.7
	교직원	36	60.0
조선인	학생	1,622	48.3
	교직원	24	40.0
합계	학생	3,361	100.0
	교직원	60	100.0

출전 : 『청진』, 20~21쪽.

【표 18】 1934년 교육비 부담금액

(단위 : 원)

		1932	1933
일본인	세액	49,184	52,354
	1호당	24,391	23,498
	1인당	5,905	5,594
조선인	세액	16,958	18,724
	1호당	2,929	3,140
	1인당	0.651	0.656

출전 : 『청진』, 22쪽.

137) 조선인 아동의 취학상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취학아동이 1931년 11월에는 2천 1백 여명이었는데 1932년 2월에는 2천 5백 여명으로 그 수가 급증했다. 「糊口에 無暇하여 未就學兒童增加 府當局對策에 腐心」, 『每日申報』 1931년 11월 18일자; 「淸津府內未就學兒童數」, 『每日申報』 1932년 2월 5일자.

조선인에 대한 교육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1937년 3월에 청진부회 의원 가운데 조선인 의원이 앉아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청진상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 당국을 긴장시켰다.<sup>138)</sup> 결국 청진상업학교에 조선인 입학을 허용하면서 민족차별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했다.<sup>139)</sup>

## 맺음말

청진은 일제침략과 더불어 새로 형성된 도시였지만 1944년에는 인구가 조선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도시가 될 만큼 팽창한 대표적인 '식민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진이라는 지명도 일본군이 작명한 것이다. 청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통해 '식민도시'의 특징과 한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러일전쟁이후 민간인이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식민권력이 일본인회나 청진상업회의소 설립을 독려할 정도로 일본인단체와 식민권력이 밀착되었다. 그럼에도 청진상공회의소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을 때 총독부는 상업이 활발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 차례 거절했다. 하지만 청진은 결국 상공회의소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고 대륙침략기에는 만주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식민권력과 밀착했던 청진의 일본인 세력은 여러 사안에 대해 일본정부를 비롯하여 일본제국의회, 총독부 등에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로비했다. 이 과정

138) 『淸津府關係綴』CJA0003627, 185쪽.

139) 「淸津商業學校入學 志願은 廿五日까지」, 『每日申報』1938년 2월 22일자.

에서 때로는 다른 지역과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 좌절과 승리를 맞본 이런 노력은 청진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전기가 되었다.

청진은 상권을 동북만주로 확대하기 위해 철도부설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길회선의 중단항 경쟁에서는 나진에 패했으나 청진의 철도부설운동은 함경선과 길회선이 개통하는 데 일조했다. 철도부설과 함께 청진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항로개설을 들 수 있다. 청진~敦賀 사이의 항로개설은 처음에는 식민권력자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이후 청진은 대대적인 항로개설운동을 전개했다. 일본정부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도 끈질긴 로비를 통해 직통명령항로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단항문제와 마찬가지로 개발착 기점 경쟁에서도 나진에 패배했는데 이는 조선의 내적 상황에 기인했기보다 만철이 나진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했다.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청진과 같은 항구도시에서는 축항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인구가 집중되면서 난개발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항공사를 시행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가지계획에 따라 가로망, 구획정리, 주택지, 공업지 등도 정비했다. 이밖에도 도시민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었다. 청진은 해안지대를 매립해서 만든 신설 도시였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8년에는 급수호 비율이 70.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새로운 지역이 편입되면서 급수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하수도는 위생상 상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어서 청진은 하수도공사를 계속 시행했는데 빈민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청진은 처음부터 식민권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한국병합전에 한국정부는 目賀田種太郎의 개항권유를 거절했지만 집요한 압력을 받게 되자 결국 이를 허용했다. 한국병합 이후 청진은 부로 승격되었고 함경북도 대표하는 도시로 인정받았다. 1914년에 부제가 시행되었을 당시에 청진은 부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었으며 심지어 주요 면보다도 인구가 적을 정도였다. 부제 실시 이후 청진에서도 자문기관으로 임명직 부협의회를 두었고 1920년에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명목상의 민선 부협의회를 두었다. 1930년에 지방행정제도 개정에 따라 청진도 부협의회를 대신하여 부회를 설치했고 의결기관으로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초기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부회 의원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그런데 상당수의 조선인이 청진으로 이주하면서 1940년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유권자 수가 비슷해졌고 의원수는 동률이 되었다. 하지만 의장은 부윤(일제강점기 기간 중 모두 일본인)이 맡았기 때문에 결국 결정권은 일본인이 가졌다.

인구증가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동반했고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청진의 경제는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무역이다. 1910년을 기준연도로 하면 1942년에 수이출은 1,100여배, 수이입은 120여배 증가하여 조선무역 일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다. 특히 청진은 만주와의 통과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대륙침략 이후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만주수출이 증대했고 이후 '대륙전진병참기지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진은 '북선루트'를 통해 식료품의 공급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진의 상권은 계속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1934년에 청진인구 가운데 농업종사자는 2.4%였던 반면 상업 종사자는 41.4%를 차지했다. 1942년의 경우에도 본점회사 가운데 상업회사는 40.4%나 되었다. 다만 납입금에서 상업회사는 11.5%에 불과한 반면, 회사수에서 10.1%였던 수산업이

45.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산물 수출이 청진경제에서 가장 중요했고 해산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형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도시형성초기에 청진에는 공업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대륙침략으로 북부조선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본독점자본이 진출하여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다. 특히 수산업 회사의 자본규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산가공업이 크게 발전했으나 일제말에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식민도시’ 청진은 심각한 민족차별의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진개발의 주체와 수혜자는 여러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일상적이고 모든 면에서 일본인이 특혜를 받았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그런데 1939년 청진의 경우 일본인 인구가 17%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독점자본의 지점회사를 제외한 청진의 본점회사만 분석해도 자본금과 납입금에서 일본인의 비중이 90.3%와 91.8%로 일본인이 청진경제를 독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 차별로 이어져 1937년에는 ‘친일적인’ 조선인 부회 의원들마저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포된 수많은 문제들은 내용이나 성격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도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세계 압박을 견디지 못한 농촌인구의 이농으로 도시가 팽창되면서 실업자와 세공민의 증가, 빈부계층간의 갈등,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차별문제도 더욱 심화되었다. ‘식민도시’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도시에 대한 자료나 분석에 이어 각 도시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다음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부표 1】 청진의 통과무역

구분	만주로부터		만주로		합계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1910	3,709	9.7	539,640	89.9	543,359
1911	1,239	5.0	606,690	61.4	607,934
1912	21,012	32.7	956,254	82.1	977,299
1913	37,059	35.6	989,999	78.2	1,027,094
1914	25,862	15.1	723,499	49.0	749,376
1915	16,978	9.4	496,289	24.1	513,276
1916	98,438	17.9	823,690	33.3	922,146
1917	915,845	81.3	1,483,506	53.0	2,399,432
1918	2,220,036	64.5	2,314,676	55.9	4,534,776
1919	3,024,984	89.5	4,315,050	64.6	7,340,123
1920	1,819,945	63.5	3,451,372	56.8	5,271,380
1921	571,789	14.0	1,803,143	23.6	2,374,946
1922	1,083,793	26.7	2,457,312	32.1	3,541,132
1923	2,746,124	40.8	2,643,676	24.8	5,389,841
1924	1,887,559	20.9	2,204,551	19.8	4,092,131
1925	1,777,335	25.8	3,186,554	30.0	4,963,915
1926	4,790,722	66.2	4,170,833	34.4	8,961,621
1927	6,680,445	70.6	3,097,057	23.7	9,777,573
1928	6,459,200	61.6	2,270,267	16.2	8,729,529
1929	3,706,806	28.1	1,936,300	13.9	5,643,134
1930	2,628,394	31.7	1,154,013	11.6	3,782,439
1931	502,871	7.5	1,060,552	15.7	1,563,430
1932	1,725,413	18.8	1,964,316	15.9	3,689,748
1933	1,904,912	19.5	2,006,730	12.7	3,911,661
1934	9,210,310	71.3	4,523,221	19.2	13,733,602
1935	4,992,188	23.8	7,658,128	25.5	12,650,340
1936	15,329,342	48.0	5,949,413	14.0	21,278,803
1937	16,309,241	41.8	10,457,641	20.5	26,766,924
1938	12,359,173	31.9	12,977,672	18.1	25,336,877
1939	15,223,223	27.1	21,472,809	21.1	36,696,059

출전 : 『상공회의소사』, 355~356쪽.

【부표 2】 청진상공회의소 회원 영업별·민족별 인원표

구분	일본인	조선인	합계
음식점업	1	1	2
신발가게상	2		2
미잡곡상	12	9	21
도자기상	7		7
시계귀금속상	1	1	2
요리업	13	3	16
여관업	9	1	10
和洋잡화상	11	5	16
약기상	1		1
과자상	7	1	8
금물상	8		8
지물상	1		1
蒲鋒(어묵)상	2		2
양복상	1		1
疊商	2		2
대리업	5		5
냉면상		2	2
창고업	1		1
造船업	3		3
繩叭筵상	1		1
무진업	1		1
운수운송 및 운송취급업	11	5	16
청부업	24	2	26
靴下(양말)상		1	1
약종상	5		5
모직물상	1		1
가구상	2		2
五服商	6		6
고무신상	1	1	2
고물상	1	1	2
철공업	2	3	5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전기업	1		1
전기기구상	1		1
荒物(부역용품)상	1		1
목제상	14	2	16
잡곡상	10		10
술·된장·간장제조 및 판매업	7		7
魚油肥제조해산물상	9	19	28
은행금융금전대부업	23	1	24
우육 및 우유상	2	4	6
면사포잡화상	4	11	15
자전거상	3	1	4
자동차상	5		5
식료잡화상	14		14
문방구상	2		2
소주양조 및 판매업	2	7	9
周旋(중개)업		1	1
염어상	1		1
피혁상		1	1
皮靴제조 및 판매업	1	3	4
선어 및 해산물問屋(도매)상	5	1	6
석탄상	3		3
선구 및 어구상	8		8
석유상	5		5
비누 및 화장품상	2		2
청과야채 卸商(도매상)	1		1
합계	266	87	353

출전 : 『청진』, 부록 22~23쪽.

【부표 3】 청진 본점회사

구분	본점주소	설립일	자본금 (원)	납입금 (원)	업종	배당	지점	사장
安全自動車商會(合資)	청진부 항정 8	1933. 10. 01	32,000		운수창고			崔昇在(12500부)
淸津土地建物(株)	청진부 포항동 11	1920. 10. 25	300,000	85,000	금전신탁	7		水島計次郎
威北自動車(株)	청진부 항정 12	1933. 08. 21	1,000,000	750,000	운수창고	7		東條正平
威北無盡(株)	청진부 입주정 5-4	1937. 04. 20	2,000,000	500,000	금전신탁	8	웅기, 회령, 나남	(회장)山本和太郎, (사장)光永喜七
淸津金融(合名)	청진부 신암동 101	1938. 06. 29	20,000		금전신탁			張利進(10000)
東一商會(株)	청진부 보경 3	1924. 03. 09	200,000	200,000	운수창고	10		朱亨順
中央택시(株)	청진부 포항동 81-11	1937. 01. 08	150,000	75,000	운수창고	5		林富太郎
北鮮合同電氣(株)	청진부 미생정 3-2	1912. 03. 31	7,700,000	4,550,000	전기	10	청진, 성진, 회령, 웅기, (영업소)나남, 나진, (출장소)경성	小倉武之助
北鮮木材(株)	청진부 북천정 16	1923. 04. 21	300,000	300,000	제조공업	3	(사무소)大(전무이사)小宮山 阪市 南區 精一, (이사)福原俊 長堀橋 筋日 丸, 常吉正一, (감 簡 빌딩 내 사)木村力	
鮮滿車體製作(合資)	청진부 포항동 78-1	1933. 07. 01	8,000		제조공업			田島義晴(4000부)
淸津魚糧工業(株)	청진부 명치정 32	1935. 01. 13	1,500,000	1,000,000	제조공업	12		宮本照雄
淸津冷凍(株)	청진부 대화정 29-2	1936. 07. 24	200,000	50,000	제조공업			三浦計
淸津造船鐵工所(株)	청진부 보경 6	1937. 02. 01	500,000	125,000	제조공업	6		佐佐木光次
秋田水産工業(株)	청진부 송향동 변외리 입지	1936. 03. 25	1,000,000	1,000,000	수산업	0		飯澤清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東海水産工業(株)	청진부 송향동 번외지	1936. 05. 20	500,000	500,000	수산업			薛卿東
咸北輸出鹽魚水産(株)	청진부 향경 7	1936. 09. 18	200,000	80,000	수산업	12		川本彰一
北鮮鱒寸(合資)	청진부 포항동 323-1	1937. 05. 06	20,000		제조공업			小野田勘治 (노무무)
淸津酒造(合名)	청진부 포항동 191	1935. 12. 11	22,000		양조업			金翼來(11000)
矢倉造船鐵工所(株)	청진부 송향동 이항 매립면 외지	1937. 12. 08	200,000	50,000	제조공업			朱亨順
淸津製材(株)	청진부 포항동 80-8	1938. 05. 17	200,000	50,000	제조공업			襄貞基
朝鮮酸素工業(株)	청진부 향경 16	1938. 11. 03	180,000	61,200	제조공업			牧山耕藏
朝鮮電機製作所(株)	청진부 보경 6	1938. 11. 23	35,000	35,000	제조공업			七條元次郎
北鮮日報社(株)	청진부 포항동 81	1934. 07. 20	68,000	68,000	인쇄업			岡本常次郎
協同印刷(株)	청진부 포항동 11	1938. 03. 31	50,000	12,500	인쇄업			西本梧作
鮮滿印刷(株)	청진부 포항동 240	1938. 11. 21	50,000	12,500	인쇄업			張斗弘
大陸興業(株)	청진부 행정 5	1929. 03. 31	30,000	30,000	농림업			土田勇
北鮮土地興業(株)	청진부 포항동 240	1936. 09. 12	200,000	50,000	농림업			谷本宇三郎
安承泰商店(合資)	청진부 신암동 79	1932. 06. 23	13,000		상업			(사원)安承泰(7000유), 安吉燁, 安仁宅(각3000유)
朝鮮水産化工(株)	청진부 수남동 210	1938. 09. 20	500,000	500,000	수산업			長久伊勢吉

사학연구 제110호(2013. 6)

共和商會(株)	청진부 항경 15	1935. 11. 23	100,000	25,000	상업			影平篤介
昭興林業(株)	청진부 포항동 16	1938. 07. 25	100,000	100,000	농림업			中小路信治郎, 西村兵治
北鮮海産 (合資)	청진부 명치정 8	1927. 05. 01	30,000		수산업			川本彰一(5000号), 小杉文造(5000号)
海東商會 (合名)	청진부 신암동 83-2	1929. 04. 17	200,000		수산업			金龍煥(100000)
藤野産業(株)	청진부 보경 6	1936. 11. 27	300,000	300,000	수산업	0		藤野辰次郎
清津水産(株)	청진부 보경 6	1936. 12. 30	500,000	375,000	수산업			川本彰一
咸海漁業(株)	청진부 행정 12	1937. 03. 22	70,000	70,000	수산업	0		佐佐木準三郎
共立水産(株)	청진부 입선정 3-1	1937. 08. 12	300,000	75,000	수산업			徳弘要之助
昭和水産 (合資)	청진부 명치정 33	1937. 12. 15	190,000		수산업			安達誠三(9000号)
東洋水産(株)	청진부 신암동 78	1938. 02. 16	300,000	150,000	수산업	함흥 중흥정 東京 淀橋區 百人町 3		殖田俊吉, 金裕禎, 李鎮洙
朝鮮砂鐵鑛業 (株)	청진부 복천정 24	1938. 10. 07	100,000	100,000	광업			村上瑛
井筒商店 (合資)	청진부 명치정 27	1925. 03. 06	12,000		상업			(사원) 井筒友三郎 (1000号), 北谷徳一 (4000号), 伊丹龜八 (4000号), 今谷保一 (3000号)
極東貿易 (合資)	청진부 상생정 15	1931. 12. 15	20,000		상업			李昌仁(5000号)
徳弘要商店 (合資)	청진부 입선정 3-1	1933. 03. 03	150,000		상업			徳弘要之助 (63750号)
長井商店 (合名)	청진부 보경 3	1933. 08. 15	200,000		상업	(공장) 송향 동 이항		長井甚作(60000)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鮮滿用材 (合資)	청진부 포항동 11	1933. 09. 01	50,000		상업			(사원) 河村政任 (22500부), 中村直 吉(15000부), 深井 庄吉(7500부), 山本 勇次郎(5000부)
齋藤石油(株)	청진부 명치정 37	1937. 01. 02	500,000	125,000	상업	7		齋藤千代八
이토우商會 (合名)	청진부 미생정 6	1933. 12. 01	70,000		상업			伊藤福一(60000)
山田商店 (株)	청진부 명치정 13	1935. 01. 10	200,000	147,500	상업	7		山田弘隆
西村(合名)	청진부 포항동 236-25	1936. 03. 13	30,000		상업		경성부 경 정 10의 3	西村豊(26000)
東亞物産商會 (株)	청진부 미생정 1	1936. 05. 01	100,000	25,000	상업	10		(진무이사) 河上靜 太郎, (이사) 水島計 次郎, 中村豊, (감 사) 橋本勇, 黑河貫 二
清津皮革商會 (合資)	청진부 신암동 85	1936. 07. 01	26,500		상업			具大興(노무무)
宮本商店 (株)	청진부 명치정 32	1936. 07. 07	300,000	300,000	상업	5	間島 龍井 村	廣井正一
大同百貨店 (株)	청진부 포항동 240	1938. 05. 15	300,000	75,000	상업			全春景
森恭男商店 (合資)	청진부 항정 8	1938. 09. 15	25,000		상업		나남읍 생 구정 9	森恭男(10000부)
北鮮土木 (合資)	청진부 포항동 16	1932. 01. 11	100,000		기타			長野佐次郎 (10000부)
日本特殊材料 販賣(株)	청진부 미생정 3	1938. 12. 05	100,000	25,000	상업			池田作松, 岡村亘 浩
伊藤(合資)	청진부 포항동 69	1921. 11. 21	20,000		기타			(사원) 伊藤智佑 (3000부), 伊藤侯 (5000부), 菅原民野 (3000부), 伊藤タ ツ(6000)

사학연구 제110호(2013. 6)

山下組(合資)	청진부 포항동 266	1922. 01. 18	100,000		기타			山下喜春(50000号)
北鮮土地(株)	청진부 조일정 21	1928. 01. 16	60,000	60,000	기타			四元嘉平次
黑河組(合資)	청진부 수정 6	1935. 11. 15	100,000		기타			黑河義一(10000号), 黑河貫二(66500号)
大同運送店 (合名)	청진부 북성정 18	1929. 01. 20	9,500		운수창고			三谷諭三
濱組(合資)	청진부 조일정 8	1931. 04. 01	23,000		기타			濱龜市(노무무)
一本組(合名)	청진부 포항동 73	1933. 02. 11	150,000		기타			深井庄吉(40000)
清津俱樂部 (株)	청진부 북성정 22-2	1933. 10. 31	18,000	4,500	기타			石田貞次郎
滿鮮土地(株)	청진부 포항동 240-8	1934. 05. 10	500,000	500,000	기타	10		松岡辰郎
清津青果市場 (株)	청진부 영정두구내 번외지	1935. 04. 02	100,000	35,000	기타	9		岩田遂
三共(合資)	청진부 포항동 240	1937. 02. 05	30,000		기타			金石一郎(10000号)
安田組(合資)	청진부 포항동 233-1	1937. 03. 03	150,000		기타			松生剛(10000号)
鮮滿旅行俱樂部 (合名)	청진부 포항동 235-8	1938. 06. 20	16,000		기타			金河淸(2000)
마루에스工業 (株)	청진부 미생정 3	1938. 11. 20	100,000	25,000	기타			宇野光三郎, 岡村 亘浩
清津海運商會 (合資)	청진부 미생정 12	1925. 11. 06	10,000		운수창고			小河敏直
丸通内外通運 (合資)	청진부 입선정 1	1935. 08. 10	25,000		운수창고			松浦新太郎
間島運輸公司 (合資)	청진부 보정 5	1935. 11. 27	6,000		운수창고			洪思杓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丸宗回漕店 (合名)	청진부 영부두횡내 번외지	1937. 02. 10	5,000		운수창고		明瀬秋廣
協和鐵工所 (合資)	청진부 포항동 16	1933. 06. 08	1,200		제조공업		浦茂雄
裕昌商會 (合名)	청진부 신암동 78	1937. 09. 24	10,000		제조공업		金學洙
共同鑄物製作 所(合資)	청진부 포항동 443	1938. 03. 19	5,200		제조공업		朴仁範
光明(合資)	청진부 신암동 100	1934. 04. 05	5,000		인쇄업		安昌鎬
新興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237	1938. 06. 15	10,000		수산업		李在咸
淸津海運 (合資)	청진부 대화정 26	1922. 01. 23	10,000		상업		林廣次
泰盛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134	1922. 05. 21	11,980		상업		鄭泰淵
淸津木材 (合資)	청진부 보경 3	1923. 02. 05	30,000		상업		國行健輔
咸北漁業 (合名)	청진부 신암동 72	1924. 01. 27	10,000		상업		李亨重
村井商店 (合名)	청진부 서경 12	1926. 04. 25	2,000		상업		村井正英
河合商店 (合資)	청진부 조일정 9	1927. 06. 30	5,000		상업		河合銀次郎
飯島商店 (合資)	청진부 보경 6	1927. 11. 06	3,000		상업		飯島正氣
韓興商店 (合資)	청진부 신암동 79	1928. 02. 20	5,000		상업		韓興
池田商店 (合資)	청진부 수정 4	1928. 12. 14	3,000		상업		池田幸雄
益三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81	1930. 11. 13	1,550		상업		朴時絞

사학연구 제110호(2013. 6)

竹諸商會 (合資)	청진부 부도정 9	1931. 05. 20	3,000		상업		竹林瀧太郎
咸北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88	1931. 06. 16	1,600		상업		韓炳天
咸盛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87	1931. 11. 23	6,000		상업		李濟弘
齋藤商店 (合資)	청진부 임선정 5	1932. 08. 29	10,000		상업		齋藤能友
生駒商店 (合資)	청진부 북상정 17	1932. 11. 30	10,005		상업		生駒勝藏
大德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88	1933. 08. 02	4,000		상업		姜錫在
昭和木材 (合資)	청진부 포항동 234	1933. 09. 02	5,000		상업		羅秉祿
淸津革具製造 (合資)	청진부 신암동 99	1935. 01. 21	3,000		상업		金翼洙
倉橋(合資)	청진부 포항동 78	1935. 03. 01	7,000		상업		土園秀雄
金星堂(合資)	청진부 신암동 100	1935. 03. 08	3,000		상업		朴會善
中光商店 (合資)	청진부 행정 13	1935. 04. 16	3,000		상업		中光廣助
大一商店 (合資)	청진부 조일정 26	1936. 01. 26	10,000		상업		濱野虎之助
三谷商會(合 資)	청진부 포항동 243	1936. 03. 10	3,000		상업		三谷長三郎
國際靴製造 (合資)	청진부 신암동 100	1936. 03. 31	3,209		상업		尹永璉
東滿商事 (合資)	청진부 포항동 78	1936. 09. 20	5,000		상업		金思順
西村商會 (合資)	청진부 과정 17	1937. 07. 01	2,100		상업		西村友治
壽榮堂藥業 (合資)	청진부 포항동 240	1937. 10. 03	10,500		상업		崔基鉉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大營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94	1937. 12. 20	8,000		상업		玄容珪
清津屋洋服店 (合名)	청진부 신암동 85	1938. 03. 22	3,000		상업		金重宇
清水商會 (合名)	청진부 수남동 399	1938. 10. 13	5,000		상업		黃德奎
裕信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260	1938. 12. 03	10,000		상업		崔養石
島田組(合資)	청진부 포항동 11	1934. 08. 13	10,000		기타		柏倉福太郎
三八商會 (合資)	청진부 포항동 78	1937. 03. 20	3,000		기타		笠井千代壽

출전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

## 참고문헌

### 1. 사료

『淸津府關係書類』CJA0002676, 『淸津府關係書類』CJA0002744, 『淸津府關係書』CJA0002873, 『淸津府關係書』CJA0003069, 『淸津府關係書綴』CJA0003208, 『淸津府關係綴』CJA0003560, 『淸津府關係綴』CJA0003627, 『朝鮮貿易年表』 1939년판,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朝鮮統計年鑑』 1948년판.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1976, 『商工會議所九十年史』上,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1938, 『目賀田種太郎』, 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북약사학회 편, 1991, 『帝國議會衆議院議事速記錄』2, 太山.  
中村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朝鮮總督府, 1944, 『1944年 5月 人口調査結果報告』1.  
淸津商工會議所, 1934, 『淸津と後方商勢圈』; 1940, 『淸津商工會議所統計年報』, 淸津商工會議所; 1944, 『淸津商工會議所史』.  
통계청, 1995, 『통계로 다시 보는 광복이전의 경제·사회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2. 논저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김일수, 2003, 「일제강점 전후 대구의 도시화과정과 그 성격」, 『역사문제연구』10, 역사문제연구소.  
박명규·서호철, 2003, 『식민권력과 통계』, 서울대출판부.  
박양신, 2012, 「제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과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26,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배석만, 2010, 「조선 제철업 육성을 둘러싼 정책조율과정과 청진제철소 건설(1935~45)」, 『동방학지』151, 연세대 국학연구원.
- 손정목, 1992,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감오경찰~일제강점기-』, 일지사; 1996a,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1996b,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 송규진, 2002, 「일제강점초기 ‘식민도시’ 대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45-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송규진, 2010, 「조선의 ‘관세문제’와 식민지관세법의 형성」, 『사학연구』99, 한국사학회
- 송규진 외, 2004, 『통계로 본 한국근현대사』, 아연출판부.
- 정승진, 2012, 「위계적 복합공간으로서의 식민도시, 이리(裡里)」, 『아세아연구』55-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출판부.
- 조미은, 2012,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학교조합령> 제정과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사림』41, 수선사학회
- 허정도, 2005,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마산』, 신서원.
- 히사야 히로시(김재정 옮김), 2005, 『일본제국주의 - 식민지도시를 건설하다 -』, 모티브북.

## Abstract

# The Realities of ‘Colonial City’ Cheongjin under Japanese Occupation

Song Kue-jin

Cheongjin, which was constructed newly at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but became the fourth largest city in Chosun in 1944 in terms of population, could be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colonial city’. It wa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hen Cheongjin became a logistical base for the war, attracting civilian dwellers as well. The name Cheongjin itself was named by a Japanese military unit. In Cheongjin, Japanese organizations maintained a close linkage with colonial elites, who encouraged them to establish an association of Japanese dwellers and the chamber of commerce. Japanese leaders in Cheongjin had continuously lobbied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Diet and the Office of the Governor General in Chosun to settle various pending local issues in their favor. These efforts laid the groundwork for the development of Cheongjin. When a railroad system started to be constructed to transport war supplies, Japanese leaders in Cheongjin launched a strenuous campaign for railroad construction to expand their sphere of commerce into northeastern Manchuria. The steady campaign led to the opening of the Hamgyeong Line and the Gilhoe Line. Another important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Cheongjin was the establishment of a sea route. Even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ed from financial difficulties, the Japanese leaders in Cheongjin lobbied

successfully for the designation of direct sea routes to its port. The expansion of harbor facilities and the improvement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s caused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Cheongjin and spurred economic growth. As much as the city expanded, ‘Colonial City’ Cheongjin faced many cases of serious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as well. Like other colonial cities, almost all key developers and beneficiaries were Japanese. This situation became associated with discrimination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which caused even the ‘pro-Japanese’ Chosun assemblymen of Cheongjin to tender resignations collectively.

Keywords : Cheongjin, colonial city, railroad construction, sea routes, harbor construction, water supply and drainage, discrimination

